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對敵觀 확립을 중심으로 -

2013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라 영 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선희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對敵觀 확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measures of
Troop Information Education
Focused on Establishing
a concrete Point of View on Enemy

2012년 12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라 영 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對敵觀 확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measures of
Troop Information Education

Focused on Establishing
a concrete Point of View on Enemy

위 논문을 국방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라 영 조

라영조의 국방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對敵觀 확립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라 영 조

본 논문은 지금의 군 정신교육실태를 고찰하고 달라진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군 정신교육의 방향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술하였다. 우리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 민주화된 정치 형태를 경험하며 자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자유롭고, 자기 주장도 분명하며 합리적이다.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체험하였으며 외국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거부감이 적다. 외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거부감은 적은 편이다. 한국전쟁 발발로부터 오랜 시간 뒤 태어난 이들은 분단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와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의 대북관은 국민의 정부 이후 일어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 참여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연히 이들의 대적관도 약하고,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은 변치 않고 있고 수시로 그 야욕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발언을 중앙방송에서 일삼고 호시탐탐 서해상에서 우리 군을 도발하고 있다. 연평해전부터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수시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적관 확립이 중심이 된 군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신세대 장병이 정신전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정신교육의 방법 및 그 전력화 단계를 살펴보고, 대적관 확립의 필요성과 대적관교육의 강화 방안을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외국군의 정신교육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이 본받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할 것이다. 교육생과 교관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독일군의 정신교육, 지휘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미군의 정신교육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앞서 탐구한 북한 및 외국군의 정신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정신교육 실태를 학교별, 부대별로 분석한다. 현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일방적인 교관의 강의식 주입교육은 신세대 간부후보생, 병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 동기를 주지 못해 이들을 수동적 학습자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정신교육이 행해지기 힘든 야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훈참모 및 교관에만 의존하는 정신교육의 실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관의 교육능력을 배양하기에 부족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군 정신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을 때 이뤄질 수 있다. 먼저, 군 간부의 정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훈교육이 비단 정훈담당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지식, 경험을 갖춘 간부에 의해 실시될 수 있게 특기에 무관하게 지휘관을 포함한 전 간부를 정훈간부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병들의 정신전력화를 지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의 정신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모호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를 양성과정, 초군반, 고군반별로 달리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대의 정신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학습자 참여형 교수법과 그 모델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발표 및 토론 비중을 높여 신세대 장병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현 대적관 실태, 외국군의 정신교육, 정신교육 개선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중점	3
제 3 절 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정신교육의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교육의 개념	5
제 2 절 군 정신교육	5
1. 정신전력화 단계 및 지도원리	5
2. 정훈교육의 방법	8
3.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의 필요성	10
4. 대적관 교육의 필요성	11
5. 대적관 교육의 개념 및 특성, 기능	13
 제 3 장 북한군과 외국군의 정신교육	17
제 1 절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 실태	17
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특징	17
2.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체계	19
제 2 절 외국군의 정신교육 실태	29
1. 독일의 정신교육	29
2. 미국의 정신교육	32
3. 이스라엘의 정신교육	36
4. 대만의 정신교육	38
제 3 절 북한군과 외국군의 정신교육이 주는 시사점	41
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이 주는 시사점	41
2. 외국군 정신교육이 주는 시사점	44

제 4 장 정신교육 실태 분석	47
제 1 절 군 정신교육 실태 및 분석	47
1. 대적관 교육의 실태	47
2. 학교 대적관 교육	51
제 2 절 설문지 분석	74
1. 설문지 조사내용	74
2. 각 계급별 종합의견	78
3. 설문지 분석	80
 제 5 장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81
제 1 절 군 간부 정신교육 활성화	81
1. 군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의 정신교육 생활화	82
2. 전 간부의 정훈간부화	83
3.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PC 활용방안	84
제 2 절 학교기관 정신교육 발전	85
1. 과정별 교육 목표 및 요망 수준의 차등 적용	86
2. 교육 시간 편성 상향 조정으로 실습 시간 확대	87
3. 대적관 교육 주기 조정	87
4. 핵심과제 위주 선별 교육	88
5. 교육 진행 방법 발전	89
제 3 절 부대 정신교육 발전	92
1. 야전부대에 적합한 기본방향 및 진행 모델 설정	92
2. 지휘관 중심 대적관 교육 체제 발전	94
3. 학습자 참여형 교육 기법 및 모델 적용	103
4. 대적관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담 기구 설치	117
제 4 절 정신교육 평가	121
제 5 절 정신교육 정책 제언	121
 제 6 장 결 론	 124

부록	129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 도 표 목 차 】

[표 2-1] 정신전력 및 정훈교육의 영역	6
[표 2-2] 정신전력 체계도	12
[표 3-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 중점	18
[표 3-2] 각국 군대의 정신교육 비교	40
[표 4-1] 군 대적관 교육의 근거	50
[표 4-2] 종행교 과정별 대적관 관련 과목/시간 편성 현황	52
[표 4-3] 신병 정훈교재 과제 현황	54
[표 4-4] 부대 정훈교재 과제 현황	57
[표 4-5] 주간정신교육 시간편성	59
[표 4-6] 반기 집중정신교육 시간편성	59
[표 4-7] 학교별 정훈교육 주기 편성 현황	61
[표 5-1] 과정별 목표 및 요망 수준	87
[표 5-2]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률	88
[표 5-3] 과목 세부 편성안	89
[표 5-4] 대적관 교육의 진행모델	93
[표 5-5] 학습활동 진행 단계	93
[표 5-6] 지휘 통솔자에 대한 공통적 요구 사항	95
[표 5-7] 야전지휘관(중대장)의 하루 일과표	96
[표 5-8] 대적관 교육시 지휘관 관심사항	96
[표 5-9] 대적관 교육을 위한 각급 지휘관 역할	101
[표 5-10] 제대별 교관경연대회 대상	102
[표 5-11] 전방사단 좌담회식 순회안보교육 진행 방식	109
[표 5-12] 교사 중심 교수와 학습자 중심 교수의 비교	111
[표 5-13] 주간 정훈교육 시간 개선(안)	112
[표 5-14] 토의 주제 개선(안)	114
[표 5-15] 참여식 체험위주의 대적관 교육(예)	117
[표 5-16] 전담기구 설치 방안 비교	12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은 한반도 적화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남 군사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선군정치 기치를 앞세우면서 2011년에 들어서도 1월 15일 전면 대결태세를 선포하기도 하고, 서해 NLL상 포격 도발을 가해오는 등 호전적 속성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 사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저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 사회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정책으로 대북 경각심이 급격히 둔화되고, 국민안보의식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추진한 정책적 오류가 국가 존립 기반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도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급속한 국가경제 발전의 과실(果實)과 함께 얻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관습에 젖어 현 상황을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착각하는 현상이 잔존하는가 하면, 친북·종북 성향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태세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¹⁾

1) 지난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상호교류가 활발해지자 이제까지 북한을 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동포 및 통일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당시 평양에서 개최된 '8·15 통일대축제' 행사에 참가했던 인원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 보였던 반응들은 안보적 혼돈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군에서는 2004년도에 주적 개념이 삭제되고, 같은 해 대북심리전 방송이 중단되었으며, 군의 정신교육 메카인 국방정신교육원이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존립 근거가 되는 적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만큼 장병들의 대적관도 이완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각급 부대에서 강화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장차 국가 안보의 주역이 될 신세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나아가 장병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어떻게 고취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병 대적관 교육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시행을 보장하는 여건 조성이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대적관 교육 제도는 대체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도의 운영과, 학교와 야전 등 실제 각급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태로 미루어 볼 때 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하지만, 특히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방법이나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첫째,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신세대 장병들이 특히 합리성을 중시하고 사고의 유연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영상세대, 감성 중심 개성세대라는 점, 둘째, 정보기술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군내에서도 IT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교육, 원격교육, 위성교육, 전자교육 시스템 등의 교육방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적관 교육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적관 교육 방법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각급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중점

대적관 교육은 장병 신념화를 위한 정훈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므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훈교육의 틀 속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되,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대적관 교육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대적관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명확한 적 개념을 토대로 한 대적관 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휘관의 역할 정립과 교관 능력 향상책을 모색한다.

셋째, 수용자인 신세대 병사들의 능동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변화된 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북한군과 외국군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찾아보았으며, 현행 대적관 교육의 근거가 되는 훈령, 규정, 지침과 지시 등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 논문,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각급부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물 등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현 정훈교육의 제도와 틀 안에서 광의의 교육방법 개념을 적용하여 발전 방안²⁾을 찾아보는 데 국한하고 대적관 교육을 위한 콘텐츠 분야의 검토는 논외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본고에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의 교수방법과, 교수자가 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망라한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방법'의 개념을 적용한다.(제1장 제3절 용어의 정리 중 '교육방법' 참조)

제 3 절 용어의 정의

1. 정신전력 :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을 말한다.(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1997. p21)

2. 정신교육 :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확립 등 인간정신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는 가치관교육, 생활교육, 각종 훈련, 환경 조성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장병들에게 바람직한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생활과 훈련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목적 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323호, 2011.4.20.) 국방부가 2011년도에 하달한 ‘정훈·문화활동지시’에서는 종래의 ‘정신교육’이라는 명칭 대신 ‘정훈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정훈교육 :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입각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정훈교육은 기본정훈교육과 시사안보교육, 문화단결활동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정훈교육은 제도적 측면에서 형식성과 안정성, 내용적 측면에서 종합성, 사상성, 시사성의 특성을 지닌다.(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323호, 2011.4.20.)

3. 대적관 :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을 ‘적’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확고한 가치관을 말한다.

4. 교육방법 :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말한다.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행위의 주체(교사와 학생)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주체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것들의 총체를 수단이라고 하는데,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심리적 환경,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매체나 기재,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경험 등이 수단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들을 조직·운영·관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브리태니커 사전)

제 2 장 정신교육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교육의 개념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로서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 행동과 지식, 사고, 가치관, 태도, 성격, 자아개념 등의 내면적 행동이 있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변화가 아니라 의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는 육성, 교정,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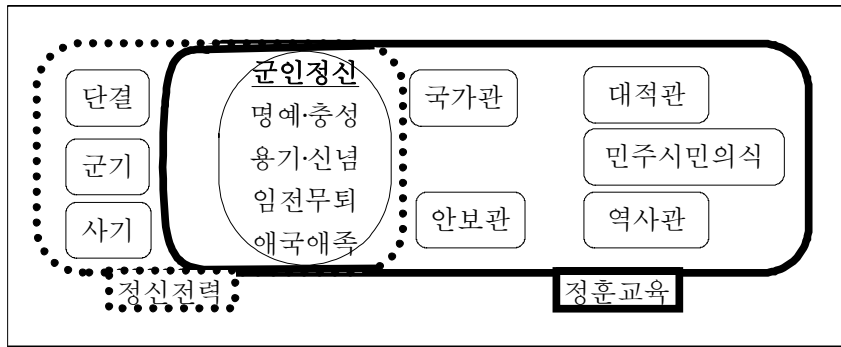
따라서 교육의 특성으로는 특정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며, 인간 성향의 포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인적인 활동이고 의도적인 인간변화의 목표나 결과가 바람직한 것으로의 가치지향성을 가진다. 또한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이 있는 인격적 만남이 있다.

이러한 범주에서 정신교육도 가치관, 신념 등 도덕적 의식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전술전기연마와 용기, 인내심을 배양하고 지휘통솔은 사기함양과 군기확립, 단결도모를 추구하며, 부대관리는 복무의지 고취 및 자신감과 군생활의 보람을 획득하는 것이다.

제 2 절 군 정신교육

1. 정신전력화 단계 및 지도원리

정훈교육은 군대교육의 일부로 실시된다. 정훈교육은 제1장 제3절 ‘용어의 정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입각하여 장병의 투철한 국가관·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신전력과 정훈교육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1> 정신전력 및 정훈교육 영역

* 자료 :국방대학교, 『국방정신전력 세미나』 (2011), p.9.

정훈교육은 인식 단계, 내면화 단계, 적용 단계의 세 과정을 거쳐서 정신전력으로 나타난다.³⁾

첫째, 인식 단계이다. 장병이 군인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 그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위협이 오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병 자신이 몸 바쳐 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분명할 때 비로소 전투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 또는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 습득 단계로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둘째, 내면화 단계이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위협 세력, 즉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에게 부여되는 제반 임무의 정당성을 깨달아 이해하게 될 때에 장병들은 그 임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무 수행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들이 몸에 배도록 하는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평소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적용 단계이다. 이 단계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가치(이유)와 규범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행동화 단계이다. 내면화 단계에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단계로서 정훈교육은 인식 단계-

3) 최광현, 『정신전력 육성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0), pp.31 ~ 32.

내면화 단계-적용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점검하고 교육하고 행동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훈교육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정신전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정훈교육 교육 지도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과 교관은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이것은 지휘관이나 교관이 교육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대적관 교육에 지휘관이나 교관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가치와 태도 같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교육을 하는 지휘관 또는 교관이야말로 부하 장병들의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치와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의적 교육은 내적 동인보다 외적 동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장병들이 입대 전 형성된 가치관을 군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찰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 가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적관 교육의 상승효과 요인과 부정적 영향력 행사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20세 이상의 성인인 장병들에 대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정훈교육은 성인교육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성인 학습의 특성은 대체로 다음 6가지로 논의된다. ①성인은 무엇을 배우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②성인은 자율적 학습욕구를 갖고 있다. ③성인은 상당량의 경험을 지닌다. ④성인은 그들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알 필요가 있거나 효과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⑤성인은 과제지향적으로 혹은 문제지향적으로 교수학습에 임한다. ⑥성인은 외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⁴⁾

4) 성인교육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명근, (1993), 『교육 훈련 공학의 기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양서원, pp.56~60.

따라서 효과적인 정훈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학습자인 장병들이 학습계획부터 실시단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장병들이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일, 적절한 방법과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휘관과 교관의 역할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정훈교육의 방법

정훈교육 방법은 주입식 방법과 탐구식 방법으로 양분된다.⁵⁾

주입식 방법은 자극·반응 연합(stimulus-response association), 조건화(conditioning), 모방(modeling) 등의 심리학의 여러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수업활동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자극과 반응과의 연결, 즉 조건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방이론에서는 모방할 만한 인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모형이 지닌 행동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탐구식 방법은 장 심리학(gestalt field psychology)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학습자들이 문제 사태에 대한 통찰(insight)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통찰의 발달은 한 문제에 대한 느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학습의 초점은 깨달음에 두며, 깨달음은 아이디어를 파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탐구과정에서 설정되는 가설과 이에 대한 감정이다.

주입식 교육방법에는 강의법과 시청각식이 있다. 강의식은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준비나 조건 없이도 할 수 있고, 강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화술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학습자들이 이해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설명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을 수동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며,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5) 이하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은 최광현 외(2000), 『정신전력 육성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37~39.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방법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고, 학습자의 관심을 일깨워 다양한 학습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수가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육 전후에 설명이나 요약,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탐구식 방법에는 토의식과 문답식이 대표적이다. 토의법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집단 사고와 대화를 거쳐 해결 방안이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 이 토의법의 장점은 지적 능력의 증가, 외적 보상으로부터 내적 보상으로의 변화, 발견성의 학습, 기억의 유지 등이나, 토의를 통해 얻어지는 발견이나 문제해결의 결과가 반드시 유의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시간의 낭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토의식 교육 진행시에는 토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토의를 위한 사전 준비와 토의 진행이 원만해야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답법은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의 발달 과정을 돕고 탐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 기법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수업을 이끌 수 없고, 다른 기법을 진행하는 도중에 부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 들어 강조되거나 일부 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참여형 교육은 ‘바로우의 문제 중심 학습이론’과 ‘존 듀이의 경험주의 학습이론’, ‘스키너의 강화이론’에 기초한 것이다.⁶⁾ 바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 및 토론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교관은 상황 조성 및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 수행에 국한시키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존 듀이의 경험주의 학습 이론은 일체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 당사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적

6) 참여형 정신교육의 야전부대 적용 실태에 대해서는 나승용(2011),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기법 적용 사례와 성과, 참여형 정신교육 기법을 중심으로』, 서울: 국방대학교 제2회 국방정신전력세미나집.

상황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험과 사고의 교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기초해서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보다는 학습자인 병사들의 입대 전 경험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어느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서 강화함으로써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도록 한다는 ‘조작적 조건화’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에는 긍정적 보상을 통해 병사들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의 필요성

군 정신교육은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체계를 정착하고 있다. 이는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생산해 내는 전투력과 전투의 승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대원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부대 운영 전체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신교육은 이념적인 정신교육만이 아니라 훈련, 작업, 교육 등 부대생활 전반에 걸친 전인 교육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의 날 교육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도 부대원의 인내력을 기르고, 체력단련을 통해서도 단결과 체력을 강화하며, 각종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강한 자신감과 군인정신 등 전 부대생활의 모든 것이 정신교육과 연계되어야 함으로 정훈장교나 교관이 아닌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이념무장이 아니라 장병들로 하여금 철이 드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며 인간을 만드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일, 주간, 반기, 충·효·예, 시사 교육 등 정신교육에 대하여는 지휘관이 알고 지휘관의 통제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급부대에서는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정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급부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림과 동시에 부대 운용에 있어 긴급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에 정신교육 전문교관이 완벽하게 보좌하여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의 의지가 필요하고 부대 운영에 조율이 필요하다.

부대는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이 되어야하며, 지휘관의 솔선수범은 곧 모든 부대원의 정신교육의 귀감이 될 것이다.

4. 대적관 교육의 필요성

대적관 교육에 대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적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대적관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강화 방안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이다.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해야만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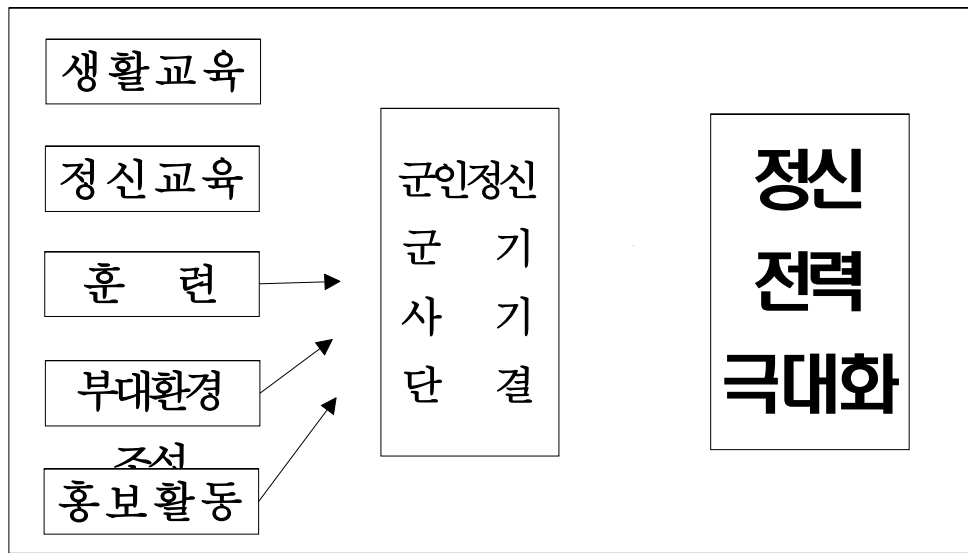
전술한 것처럼 대적관 교육은 당연히 안보관의 일부로 정훈교육의 한 영역이며, 정신전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일찍이 『전쟁론』에서 “전쟁이론에서 정신적 제 요소를 제외할 수는 없다. 전략론에서 단순히 물질적 제 요소만을 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양자를 구별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만일 정신적인 효과를 도외시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폴레옹도 “모든 지휘관은 백방 수단을 다하여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도록 사기를 고무하여야 한다.”고 그의 전략론에서 수차 강조하고, 정신력과 물질력의 효력 내용을 3대 1이라고 단정하였다.⁷⁾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의지력으로서, 정신력의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의 핵심은 군인정신의 전력화를 통한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게 된다. 따라서 정신전력의 성패는 지휘관의 지휘통솔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군에서는 정신전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도표와 같은 정신전력 육성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7) 김상준(1993), 『군정신교육 방법 개선 연구』,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p.16에서 재인용/참조



<표 2-2>. 정신전력 체계도

* 자료: 육본, 「정훈업무(야교38-1)」(2007), P.3-6.

군 정신교육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치관·신념·태도를 확립시키고, 바람직한 규범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계획적인 학습에 의한 인간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⁸⁾ 또한 군 정신교육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다.⁹⁾

정신교육의 영역은 신념 육성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가치관 교육·생활 교육·훈련·환경 조성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치관 교육은 정훈교육·인격지도·법규교육 등으로 구체화 되며, 가치관 교육의 핵심인 정훈교육은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등 3대 영역¹⁰⁾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실시되는 대적관 교육은 정훈교육의 안보관 영역에서 신념화를 위한 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8) 국방정신교육원(1992), 『군 정신교육기법 연구』,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p.5.

9) 국방부(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56.

10) 정신교육 3대 영역은 1969년 국방부에서 장병정신교육교재를 통일하면서 국가관, 사상선도,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를 정립한 이래 우리나라, 우리의 적, 우리의 군대(1977년), 국가관, 사상무장, 군인정신(1981년), 나라사랑, 통일안보, 군대윤리(1993년),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각각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표현의 변화였을 뿐으로 이해하면 된다.

신념은 군인정신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신념(Belief) 및 가치체계(Value System)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군에서 복무하고,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장병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때, 부여된 사명을 자각하여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군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의 장병들이 지녀야 할 신념 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이며¹¹⁾ 이 3가지 교육 영역은 바로 정훈교육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군인정신의 개념에 대해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승의 승패를 좌우하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정신전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여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5. 대적관 교육의 개념 및 특성, 기능

대적관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보위협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적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전통적인 영역과 비전통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강대국들의 군비증강과 지역불안정의 심화,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경제안보 위협, 환경·생태 및 자원안보 문제, 마약거래·총기류 밀매 등과 국제조직 범죄,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 정보전 또는 사이버 테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들

11) 국방대학교(2007), 『정신전력 연구 제37호』, 서울: 국방대학교, p.205.

12) 전웅(2005),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 『안보 학술론집 제 16집 제 2호』, 서울: 국방대학교, pp.42~57.

중에서 대적관 교육과 관련하여 위협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주적(主敵)인 북한의 군사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협의 심각성과 현재성, 긴박성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¹³⁾

‘주적’은 ‘임금의 적’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맞서는 적을 말한다. 현재 우리의 주적개념은 상당부분 약화되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북한은 변함 없는 주적이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남한의 공산화를 최고의 전략목표로 삼고 6·25 기습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전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대남도발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정치적·인도적인 측면에서 상생해야 할 동족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안보적·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유사시에는 싸워 승리해야 할 주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주적개념은 적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군사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햇볕정책과 같은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변질되었고, 그 결과 군내부에서는 한동안 적을 적이라고 말하거나 실상을 비판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져야 했다. 이때부터 군의 대적 경각심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필승의 정신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측이 적중했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군의 정신무장을 해체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온 북한과 남한 내 친북좌경세력은 큰 승리를 거둔 것이며, 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병 정신력이 와해되는 불행한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적개념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아닌 사실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명쾌하게 재정리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13) 안보위협 중 북한의 군사위협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위협은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인데, 이 역시 심각성과 현재성, 긴박성 면에서 북한 군사위협과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적관교육의 개념을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위협만이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현상 역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훈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적관 교육은 바로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 즉 ‘적’이 누구이며, 왜 이러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정신전력의 중요한 요소인 필승의 신념을 굳건히 하여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적관 교육은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국군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도발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겠다는 필승의 정신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적관 교육은 통일성, 사상성, 시사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물론 정훈교육의 통상적 성격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첫째, 통일성은 정훈교육이 갖는 일반적 성격으로서 군대사회의 유지 발전과 군인으로서의 자아 정체감(self-identity) 형성을 위한 교육적 수단이어서 교육의 형태와 내용, 방법, 평가, 시간 등에 있어서 전군적 통일성을 갖고 추진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훈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국방부에서 통일된 교재와 지침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며, 대적관 교육은 특히 이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하는 과목이다. 둘째, 사상성은 정훈교육은 정치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둔 인간교육이며, 적 사상의 반 가치성과 반 인류성을 인식시키는 가치교육이므로 이론교육과 실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셋째, 시사성은 대적관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국내외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자료와 정보에 의한 참신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¹⁴⁾

14) 최광현(2000), 『정신전력 연구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24~26.

대적관 교육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앞 절에서 언급된 정훈교육의 지도 원리와 그에 부합된 교육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실시해야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군의 정신교육은 ‘장병 국가관, 안보관 확립 및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사상전 수행의 기본전제가 되며, 그 중추적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사상전, 심리전, 이념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을 통해 상대를 능가하는 정신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의 정신교육은 장차전에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겪게 될 민족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주역으로서 북한군 동화교육을 담당하거나 수복지역 주민들의 선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군의 정신교육은 평소부터 착실히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군 정신교육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 배출한다는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민주시민 양성차원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이념교육 측면에서는 국가사회의 최대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군의 정신교육인 것이다.

15) 지경재(1998), “야전군 지휘관을 위한 정신교육 지도방법의 모색”, 『교수학술 논문집 제1권』,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176~177.

제 3 장 북한군과 외국군의 정신교육

제 1 절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 실태

1.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특징

1) 정치사상교육의 목표

북한군은 김정일을 결사 보위하고 당과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군을 육성하는 데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를 두고, ‘혁명의 완수를 위해 죽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라고 선전하면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은 현대전에 적응하는 군사기술에 정치교양을 배합 후, 전투사상적으로 무장시켜 당에 충성하며 맡은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혁명전사’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¹⁶⁾

궁극적으로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의 사병화를 위해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둘째, 군대를 노동당과 김정일 정권에 절대 충성하는 공산주의 투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신적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혁명 무력화’의 정당성을 고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의 최고 형태는 폭력에 의한 정권의 전복이며, 전쟁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공산주의적 전쟁관을 심어주어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16) 국군정보사령부(1994), 『북한군 교육훈련』, 대전: 육군인쇄창, p.9.

이처럼 북한군은 군대를 혁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군사 기술적인 강화보다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라고 보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치사상교육의 중점 및 기본 방향

북한군 정치교양은 ‘충성심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애국주의 교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3-1> 과 같다.¹⁷⁾

구 분	교 육 내 용	비 율
충성심 교양	• 김부자 혁명역사, 문헌, 교시학습 • 김일성, 김정일 주의(주체사상, 주체이론 등) • 김정일 덕성 실기 학습	40%
혁명전통 교양	• 김일성의 혁명과정, 항일투쟁 • 항일 빨치산 참가자 회상기 • 노동당의 건설, 역사, 정책 교육	20%
계급 교양	• 사회주의 우월성, 자본주의 멸망 불가피성 • 미, 일 제국주의와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 • 적대 및 착취계급의 본성	20%
사회주의 / 애국주의 교양	•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 • 민족 우수성, 공공질서 교육 •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등	20%

<표3-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 중점

* 자료 : 국방대학교, 정신전력론집, 2010.

김정일은 1994년 9월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일층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려 북한군의 사상교육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김일성 유일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정보사령부(1997), 『최근 북한군 정신교육 실태』, 서울: 정보사령부, 적 연구지 10호, pp.198~201.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 역시 2012년 12월 이례적으로 ‘소요’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김정일 사후 내부 불안을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한 ‘기강 잡기’로 해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은 또한 ‘남조선 내의 반미·반정부 혁명역량을 조성하고 마련한다’는 대남혁명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기본 방향을 ① 남조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 ② 남조선 혁명대중의 혁명적 의식화 실현 ③ 남조선 사회의 반미자주화와 민주화 실현 ④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지지 기반 확대와 평화적 이미지 부각 ⑤ 남조선 사회의 내분 조장 및 체제 약화를 통한 와해 실현 ⑥ 남조선 혁명의 국제화 실현 및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 6가지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2.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체계

1) 제도적 측면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북한군 교육제도의 특징은 당 중앙위원회가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도 및 감독함으로써 교육일선에 즉시 반영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 역시 당의 정치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총정치국에서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고 있고 총정치국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교육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수시로 전군에 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노동당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제작 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자료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북한주민과 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이다.

- 당에 의한 강력한 교육통제 체제 확립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고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장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 노동당과 김정일 정권에 충실한 공산주의 투사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은 철저하게 노동당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으며 제대별로 정치부를 편성하여 정치적으로 통제 및 장악을 하고 있다.¹⁸⁾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에 의한 강력한 교육통제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내 정치조직은 정치 및 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사상교육은 당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정치사상교육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이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제대별 혁명전통 연구실 및 학습교양실 운영

북한군은 중대급 단위까지 전 부대에 혁명전통 연구실과 학습교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업적과 관련된 우상화 선전물과 각종 교재 및 시사자료까지 비치해 놓고 있다. 특히, 중대단위로 실시되는 정치사상교육과 보도활동, 집회활동 등 각종 교육 및 토의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에서 중대단위 내무실까지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수시로 상급부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강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군은 정치사상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각종 집회를 통한 사상적 통제를 목적으로 중대단위까지 학습교양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정치사상교육을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

북한군은 정치사상교육을 모든 교육훈련 과정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18) 함택영(2000),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 전략』,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p.93.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6·25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이 당의 사상교양과 정치사상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혁명이 사회발전과 공산주의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을 혁명적인 전사로 육성하고 무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사상교육을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10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통해 요일별로 정해진 계획에 의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매일 일과 후 2시간 정도씩 실시되는 정치상학 시간을 이용하여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교양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혁명역사,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정일의 교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정치사상교육은 정신적 전투력으로 간주하는 당의 정치사업으로서, 어떠한 군사교육 훈련보다도 철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¹⁹⁾

2) 방법적 측면

- 신분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차별화 적용

북한군은 한국군과 달리 하전사 보다는 군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더 강조하면서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⁰⁾

조선인민군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습제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전사용 교육자료에 비해 군관 및 장령용 교육자료가 대부분 분량이 많고 내용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급자에 대한 지도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자료에 ‘학습토론 지도안’을

19) 국방정신교육원(1998), 『21세기를 지향하는 군 정신전력 좌표』,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p.47.

20)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 시간은 총 교육훈련시간 대비 군관의 경우 35%, 하전사의 경우에는 20-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별도로 제시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전사용 교육 자료와 달리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고급간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하전사를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고급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도록 만들고 임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북한군에 근무하다가 귀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군관과 하전사들의 교육내용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세계와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군관들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하전사들은 ‘위에서 교육시킨 대로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²¹⁾ 이는 군관들과 달리 하전사들은 당과 군대에서 알려주는 정보 외에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의 폐쇄로 인해 사고가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한 행동화 유도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교육은 정치활동조와 정치교양활동, 집회활동, 보도활동 등 다양한 조직과 방법을 통해 끊임없는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관운영에 있어서 소대는 정치지도원 및 소대장이, 중대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실시하며, 매일 이루어지는 일과후의 교육은 소대단위로 실시하고 주간단위 교육은 전 중대원이 통합하여 혁명전통 연구실에서 실시한다. 간부교육의 경우 군관조와 하전사로 구분하며, 군관조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정치군관 주도하에 월1회 이상 조 단위로 실시하고 하전사조는 주1회 이상 별도로 중대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실시간에는 정치지도원이 교육내용과 관련된 추가 교육 자료와 함께 다양한 사례교육을 실시한 후 필요시 학습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관의 교육이 끝나면 질의응답

21) 기무사령부(2000), 『북한군 정신교육 실태』, 서울: 기무사령부, p.74.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심화시키는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사상교육을 병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지명된 인원이 특정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독보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명예 게시판 운용, 벽보 부착, 전투속보 활용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행동화를 강조하고 있다.

- 집단의식 주입으로 교육효과 제고

북한군은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집단의식을 주입시켜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이 전 계층에 적용하고 있는 정치교육의 원리 중 ‘집단의 원리’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²²⁾

‘집단의 원리’란 개인은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오직 집단을 통해서만 완전한 존재로 된다는 믿음과 함께, 집단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경쟁토록 만든다는 원리이다. 북한군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집단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즉, 지휘계통 이외에 군 당 위원회나 사로청 조직을 통해 새로운 과업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게 하거나 상호비판 또는 자기비판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당의 정책에 맹종하게 하고 혁명에 충실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집회활동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집회활동은 군인총화, 선서모임, 당 및 사로청 회의, 공개당 총화, 당 및 사로청 생활총화 회의, 충성의 노래모임, 독보회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의식을 주입시킴은 물론 사상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22) 극동문제연구소(1971),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교육 정책』,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p.87.

- 연중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신념화 유도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관련 주제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²³⁾ 이처럼 끊임없이 주입되고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 북한군 군관과 하전사들을 세뇌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반복학습을 실시하는 목적은 언행이 사고를 결정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하는 언행을 집단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면 그 언행은 조건화되고 조건화된 언행에 따라 사고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 동일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규정된 틀 내에서의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내용적 측면

- 남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 및 김정은 우상화 교육 강화

북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치사상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앞장에서 시기별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000년도 이후 입수된 북한군 교육용 학습제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와 협력이 종전에 비해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정치사상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6월 분단 반세기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여전히 남한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며, 북한군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 및 상호교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군대는 절대 이에 동요하지

23) 육군 군사연구실(1998), 『북한군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육군본부, p.196.

말 것과 무력을 통해 적들과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로 전쟁준비에 더욱 매진하라고 독려하였다.

최근에는 북한군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부자 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군은 2011년 4월부터 군인들에게 ‘포병의 심오한 철학을 심어주시며’라는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덕성실기’(수령의 덕성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적은 기록. 사실은 우상화 선전물에 불과함)라는 책을 매일 아침마다 독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김정은의 행적을 미화한 ‘영장(英將)의 기치 따라 1년’이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를 군인들에게 상영하는 등 김정은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다.²⁴⁾

- 한·미·일에 대한 기본인식 불변

2000년도 이후 발행된 북한군 정치사상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정권이 남한을 미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로 간주하는 가운데, 무력으로 타파해야 할 대상이며, 남한의 반공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사상의 위대성 부각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던 1995년 초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들어와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정착되었다.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기능의 제한사항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24) 국방일보, 2011.10.5, “북한·북한군 바로알기-김정은 세습 1년”

체제 위기를 해소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려는 데 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불만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의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경제 회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화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통제기능의 보강과 경제난 해소 및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보존하고 있는 군사부문에 대한 집착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또한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북한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 영역에 이를 투영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이후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군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북한군은 당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개방개혁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촉구

비교적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일부 간부층이나 국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북한체제보다 더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북한이 왜 개방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북한정권은 남북대화나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내부적인 동요와 사상적 이완현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치사상교육에 더욱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25) 국방부(2009), 『정신교육 기본교재』, 서울: 이화산업, P.214.

26) 기무사령부(2000), 전계서, P.77.

4) 교관 운용면

- 제대별 정치군관에 강력한 권한 부여

북한군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 우선적인 과업으로 인식하고, 정치사상교육을 어떠한 분야보다 강조하고 있다.²⁷⁾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정치사상교육 자료를 학습제강이란 이름으로 작성, 전군에 하달하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 발생시 ‘특별 학습제강’을 별도로 내려 보낸다. 군단·사단·중대 등에 배치된 정치지도원들은 이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군 병사와 하전사, 군관 등에게 정치학습을 시키게 된다.

북한군은 군복무 10여 년 간에 걸친 철저한 정치교육을 통해 김정일과 당을 위해 절대 충성하도록 세뇌되고 있으며, 군인들의 희망사항은 노동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는 것과 군관으로 선발되어 군에서 출세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 가며 군대를 당의 군대, 김정일의 사병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사상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정치장교들을 내세워 이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위원 및 정치지도원들은 군의 정치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지도 및 감독, 교육시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북한군의 사상교육은 한국군에 비해 강도 높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교관요원의 전문화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군관들은 당성이 우수한 인원들이며 수 년 간에 걸쳐 사상학습을 받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정치군관은 당·정·군의 고위층 자녀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며 정치대학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임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관 후에도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3년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반군관에 비해 기본적인 소양과 자력이 우수하며, 정치사상적으로도

27) 연합뉴스(1996), 『북한 50년』, 서울: 성웅인쇄사, P.78.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다.²⁸⁾

이처럼 사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요원의 질과 수준이 높고 교육지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군에 있어서 정신교육의 성과 자체가 상위계급의 진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당에 입당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교육 평가면

- 제대별 주기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북한군의 정신교육 평가는 총정치국에서부터 소대급에 이르기까지 전 제대에 걸쳐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2단계 하급부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총정치국에서는 사단급 부대를, 군단에서는 대대급, 사단은 중대급, 연대는 소대급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주기는 사단급은 반기 1회, 대대급은 분기 1회, 중대 및 소대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월 1회 실시한다. 평가내용은 교육지시 이행 상태와 교육결과, 지도 및 감독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우수한 부대를 선발하여 ‘붉은기 중대’ 칭호를 부여하게 된다.

- 평가결과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

평가결과는 우선적으로 부대 전투력을 판정하는 주요 항목이 되며, 개인에게는 보직과 승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당과 수령,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평가결과를 개인 신상카드에 기록하여 제대 후에도 직업의 선택이나 상급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평생 동안 개인을 평가하는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시키고 있다.

28) 정석홍(1997), 『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 사람, P.339~340.

제 2 절 외국군의 정신교육 실태

외국군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었지만, 공산권 붕괴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공산주의에 대한 실상 인식 위주의 정신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공산권 붕괴 이후에는 대만의 경우만 사상전 위주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대 및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관, 군인정신, 리더십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의 외국군은 정신교육을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사상교육 수준을 넘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과 행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휘관이 중심이 된 기술훈육을 하고 있다.

1. 독일의 정신교육²⁹⁾

독일 군 정신교육의 목적은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이상적인 형태의 독일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독일 군인은 자유 인격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독일 군인은 정신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적인 인간으로서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일 군인은 강한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동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정신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 군인은 임무수행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며 한 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교육의 목적은 모든 군인이 추구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원칙이기도 하며, 의무적 행동규범이자 행동의 척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군의 정신교육용 주요 과목은 교육방법론, 군인의 의사결정(후견인), 소속부대의 내규, 사열과 행사, 군의 정치교육, 독일 기본법, 국회 청원권한법, 군 징계 / 이의 제기법, 군인의 의사결정 참여법 등이다. 독일

29) 국방대학교(2006), 『선진국 군정신교육 사례연구를 통한 장병 정신교육 발전방향』, 서울: 국방대학교, p.7.

연방군은 직접적인 정신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교육의 중심은 각급 지휘관과 지휘자들이다. 즉 교관에 의한 교육이 정신교육의 중심이 되고 각종 방송매체 또는 간행물 등은 직접교육을 보완하고 이해하며 신념화하는 2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군의 정신교육이 간접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독일군은 직접적인 정신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에는 연방군의 정신교육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지휘관은 ‘내적 지휘’개념에 의해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군은 연방군에서 일정 주기마다 정신교육 지침서를 하달한다. 이 지침서는 정신교육에 관한 복무규정으로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인도하거나 교육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정신교육 지침은 장병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설명과 그림설명을 포함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각급 지휘관들은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간이나 지휘통솔 간에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군의 정신교육 지침 301항에 보면 정신교육의 목적과 원칙은 모든 군복무에 적용되며, 장병 개개인의 의무이자 지휘임무라고 규정하고, 지휘관은 정신교육 원칙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교육은 모든 지휘관의 직접적인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독일 연방군의 정신교육은 지휘관의 주도로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며 시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교육 분야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처럼 독일 연방군의 지휘관에 의한 직접 정신교육 체계는 우리 한국군의 지휘관중심의 정신교육과 유사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지휘관의 정신교육 책임을 법률과 지침 등에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내적 지휘’ 개념에 의해 실시하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자율적·창의적·체계적인 정신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이 추구하는 정신교육 가치는 인권존중, 존중과 배려에 입각한 민주적인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독일군은 상호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는 새로운 전통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정신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진다. 독일군은 군인들 사이의 이해와 의견, 그리고 가치에 대한 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정신교육 지침 220항) 또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토론주제로 발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인의 판단 및 비판능력을 강화시키고, 군인이 일방적 교사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동 지침 359항).

이처럼 독일군은 군인 제각기 스스로 자기의견을 갖게 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며 임무수행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있으며, 정신교육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군의 정신교육은 강제적 주입교육이 지양되고 성인교육에 적합한 자율적 학습형태가 권장되며, 자율적 학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상담과 배려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여건을 지원한다. 소그룹 강의, 분임토의와 발표, 역할게임, 행동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대나 기관을 방문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대 간의 의견교환은 필수요소이고 상급 지휘관과 정치인들의 특강이 제공되며, 주요 주제로는 군대의 현실문제, 새로운 발전, 미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강사와 더불어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독일군의 정신교육은 매우 다양하고 유연하게 진행되며, 교육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적극 조력해 준다. 이런 교육 방식은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형성하게 해주는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2. 미국의 정신교육³⁰⁾

미 육군의 임무는 전 세계의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억제력을 높이되, 억제가 실패할 때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임무가 떨어지더라도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병들에게 항상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해야 할 임무,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직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스스로 참여하는 직무수행으로 임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임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미군의 정신교육은 각급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부대에 요구되는 정신교육 소요를 도출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신교육 관련 장교는 지휘관이 정신교육을 훌륭하게 시행하도록 조언과 참모지원을 한다. 정신교육 관련 장교는 정신교육에 지휘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신교육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하고, 균형되고, 객관적이며 적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떠한 개인도 조롱, 소외,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우방국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부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무엇보다도 리더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60년대 초에 육군사관학교를 위시하여 육군전쟁대학, 지휘참모대학, 그리고 18개 군사학교와 학군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도와 장교후보생들 그리고 장교들에게 고급 수준의 윤리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치관 내용은 1990년 7월에 발간된 리더십 교범(90년 7월)에 수록되었는데, 1999년에 다시 전면 대체하여 7대 핵심가치로 새롭게 재정립

30) 국방대학교(2006), 전제서, p.77.

하였다. 이들 가치관들은 미군의 속성을 보여주는 본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간대에 모든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황금률로 그 가치는 명예, 성실, 용기, 충성, 존중, 헌신, 의무를 말한다. 미군의 정신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적시 적절하게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미군의 정신교육은 지휘관 중심의 직·간접적 정신교육 방법, 다양한 간접 정신교육 수단 활용, 각종 전파 매체를 통한 스포츠 정신교육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신교육 활동 전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은 각 군 본부로부터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모든 계대가 정신교육을 계획, 시행, 감독 및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휘관이다. 각급 지휘관은 대면 접촉으로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정신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 지휘관들은 분기 1회씩 지휘관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지휘관 시간은 부대원들에게 중요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 부대원들은 모두 참석하여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지휘관 시간은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갈 때 가장 효과적이며, 양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최근의 상급부대 방침, 군 관련사항, 그리고 부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부대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부대의 사기를 높이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직접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각급 계대별로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신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 지휘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로는 인쇄매체, 전파매체, 웹 사이트 매체 등을 들 수 있다. 지휘관은 부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택하여 적시에 적용한다.

미군은 또한 간접 정신교육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휘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각종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전달되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국의 정신교육은 어떤 교육의 내용이 강의를 통해서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라 신문, 방송, 또는 웹 사이트 매체를 통해서 지휘관의 메시지, 부대 소식 및 행사, 훈련사항, 각종 뉴스, 오락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가 부대 관련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부대 조직원들은 이러한 정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임무와 병영생활, 일상생활들을 스스로 참여하여 수행하게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 문화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정하게 훈련된 민주주의 의식 및 가치관 교육과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저변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미군은 나름대로의 군인으로서 필요한 윤리적 자질과 품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지휘정보만 정확하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임무형 지휘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각종 문화 매체를 통한 미군의 간접적 정신교육의 방식은 미군 나름대로의 문화 형성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의 윤리적인 자질과 자발적인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체질화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정신교육은 대부분 생활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부대 신문, 방송, 웹 사이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부대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군부대 요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늘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나 오락 프로그램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군은 각종 전파 매체를 통한 스파트 정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군의 군대문화는 생활 속에서 임무들이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실용주의적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교육처럼 시간과 장소와 주체 및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지휘관 시간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는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자연스런 토의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정신교육의 형태는 대부분이 시간과 장소와 교육을 시키는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매체의 성격에 따라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지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 하급제대의 모 부대에서 부대 신문을 제작하여 부대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매체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 스포츠 중계 중에도 간단하게 광고형태의 스포츠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정신교육의 효과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루하게 시간만 끌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교육보다 훨씬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군의 간접적인 정신교육은 그 방법 면에서 최근 현대적인 조류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정신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신교육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독일이 직접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실시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병들이 꼭 필요한 교육내용들을 준비하여 병영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즉 미군의 정신교육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연구하고 조사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군의 정신교육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 또는 제대별·부대별로 그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상자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연구 조사 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러므로 독일식 정신교육이 국가 또는 군의 차원에서 목적적으로 계획이 세워진다면, 미국식 정신교육은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들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세워진 계획들을 각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평가체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한다. 그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평소에 철저하게 각서로 다짐하게 하고 윤리조사서 작성을 통해서 실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며, 그 결과 인사 평가에 반영되도록 구체화시킴으로써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도록 실용적인 업무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업무습관은 해 부대에서 정신교육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먼저 대상자들의 상황이나 특성을 정확한 파악을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교육을 실시 또는 매체제작 배포를 하고 그 반응을 반드시 파악하여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 분석을 하고나서 다시 보강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정신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3. 이스라엘의 정신교육³¹⁾

이스라엘군의 정신교육 목표는 군 정신전력 강화의 측면으로 강력한 정신력은 곧 방위전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즉 일당백의 용기와 의지 속에 전투력을 증가시키는데 더없이 큰 요소가 된다고 본다. 또한 국민총화에 기여키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이다.

이스라엘 국민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수백 년을 사는 동안 유대민족으로서의 특성은 종교의식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일성 또는 공속성이 희박하였다. 이들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되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녀가 모두 군에 입대하여 군대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한 시민, 즉 애국애족의 민족성 형성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 교육의 중요한 이념이다.

이스라엘의 정신교육은 종교적 신념을 직접적·체험식 방법으로 교육하고, 랍비식 지휘관 및 교관에 의한 전인격적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스라엘의 군 정신교육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몸으로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교육방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녀의 출산을 완전히 신의 섭리에 의한 신의 선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자식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고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만들

31) 국방대학교(2006), 전계서, p.130

려는 정신이 일치하였다. 그리하여 부모가 그 책임자로서 자녀를 신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며 사랑하는 종교교육을 태아 때부터 엄격하게 시킨다. 출산 이후 가정이 학교가 되어 어머니와 인격적인 접촉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받는 종교 교육은 내면 깊숙이 각인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그들이 받는 종교교육 내용인 토라와 탈무드는 그들 인생의 내적 만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 그 자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사의 지도하에 평생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생존교육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군 정신교육의 특징은 인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휘관과 부하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실천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휘관들은 부하 하나 하나를 민족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인격적으로 존중하였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접촉으로 불이 붙고, 인격과 인격의 수학으로 인간의 산교육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교수 방법이 질의와 응답과 같은 토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배우는 자에게 연구 의욕을 북돋아 주게 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흐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심에 의하여 신 앞에 하나가 되는 동지로서 사제지간으로 엮여지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정신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교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정신교육은 교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신교육을 위한 교관 양성소는 별도로 중앙교관양성학교에서 양성하는데, 일반 지휘관과 전문직 교관반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켜서 이들 교관들이 병사들의 전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즉 우리 군의 정훈장교 활용과 유사하다.

훌륭한 지휘관들은 모두가 훌륭한 교관으로서 건전한 이성, 올바른 식별 및 판단력 및 장악력, 적응력, 창의력, 지휘통솔능력, 결단력 등을 구비하여 스스로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정신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인간다움’으로 교육을 시키는 ‘지휘관의 살아있는 정신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지휘관은 부대의 아버지로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전인격적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항상 부하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부하들보다 더 넓은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부하를 속속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훌륭한 지휘관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처럼, 전인격적인 교육을 해 오던 랍비처럼 종교적 도덕적 술선수범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로서, 군인으로서 훌륭한 부대지휘자로서 또는 부대관리자로서, 부하들을 잘 이해하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인격적 정신교육을 해야 한다. 결국 이스라엘 군의 정신교육은 리더십 교육과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생활 속에서의 교육체계임을 알 수 있다.

4. 대만의 정신교육³²⁾

대만의 정치작전 조직은 참모총장 휘하에 정치작전의 총본산인 총 정치작전부가 있어 제1처부터 제5처까지의 주무처와 행정지원을 위한 기구, 정치작전 계획위원회와 전지 정무국이 있고 정치작전부대와 근무지원대 등의 직할부대를 두고 있다.

또한, 각 군사령부 이하 사단급까지 정치작전부를 두어 예하에 처 및 과가 편성되어 있으며, 연대에는 정치작전처, 대대와 중대에는 정치작전 보도장을 두고 있다. 자유중국군의 정치작전 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산국가들이 부지휘관의 위치에 정치장교를 두어 표면사의 일원화 지휘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자유중국군은 군사업무의 참모장과 정치작전주임을 동격으로 두어 지휘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여 지휘를 일원화시키고 있고, 참모장이 없는 연대 이향에서는 정치작전처장이나 보도장이 부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³³⁾

32) 국방대학교(2006), 전게서, p.201.

33) 국군정신전력학교(1989), 『정신전력 강화방안 연구』, 서울: 정신전력학교, p.26.

자유중국군의 정치작전 활동은 공산국가의 감시, 감독, 강압보다 봉사와 선도의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내부생활을 통하여 장병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단정신을 고무하며 부대단결을 끈고히 하고자 중대급 이상에 중산실공작위원회를 설치, 중대장이 위원장이 되고 정전관이 총간사가 되어 중대원을 안전조, 정훈조, 봉사조, 전투조 등 5개조로 편성, 사상교육과 전투의지 고양 및 부대군기 유지, 생활명랑, 애국정신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예단결회는 인사, 상벌, 의견, 재정 등의 내용의 공개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대원의 영예심을 배양하고 부대발전을 촉진하는 거승로 매월 전 중대원이 모여 실시한다. 그리고 복지와 오락활동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술공작총대, 부리총처, 매스컴센터, 군중방송총대, 군사뉴스, 통신사신중국출판사, 중화TV방송국 등 각종 근무지원대를 운영함으로써 부대 활동을 돕고 있다.

대만군은 ‘삼민주의’ 즉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정신교육 지도이념으로 설정하여 정치작전(정신전력) 분야를 통해 모든 교육 분야를 포괄하는 전 인격적인 교육과 동시에 전 사회적·국가적·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시키고 있다.

대만군의 정신교육은 강의, 토의, 실습, 체험 등의 배합식 교육으로 진행하는데, 총 교육시간 중에서 강의와 토론 및 연구발표 시간을 5:5의 비율로 운영을 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관은 대부분 고급장교 또는 퇴역하였지만 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인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사상이 건전한 리더 육성을 위한 정치철학이나 정치작전 분야의 교육은 전문분야의 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의 깊은 연구로 정제된 교재를 배부해주고 강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응용분야의 과목들은 일정한 상황을 부여하고 실제 담당관의 직책을 부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 상호간에 열띤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군은 정치작전교육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의 배합교육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험식 교육으로 학교 내에 역사관, 시청각 교육실, 미술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중산 기념관, 중정 기념관, 국립 박물관 등 현지 견학교육도 중시하고, 생활지도 교육으로는 정확한 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고상한 인격과 품위를 배양하며, 개혁적 인생관을 확립함을 목표로 정신훈화, 전문 강좌, 웅변대회 및 토론회, 클럽활동, 독후감 발표, 역사인물 발표회, 사제지간의 활동 및 전통 가치관(충,용,인,애)의 사례 등 강의, 토의, 실습, 체험 등 배합식 정신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북한	독일	미국	이스라엘	대만
목표	· 공산주의적 전쟁관 주입 및 적화통일 정당화	· 민주시민 양성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우월성 주지	· 애국애족의 민족성 형성	· 국가적인 인재 양성
방법	· 신분별로 교육시간 및 내용의 차별화	· 지휘관에 의한 직접 정신교육	· 지휘관의 재량에 의한 교육	· 랍비식 교관에 의한 교육	· 단위대마다 정치작전 기구 조직
특이점	· 교관요원 권한 부여, 전문화	· 지휘관의 교육 책임을 법/지침으로 명시	· 정신교육의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유대관계를 통한 체험식 교육	· 실습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 / 장점	· 일관성 있는 교육 시스템	· 지휘관의 주도로 높은 성과	· 거부감 없이 효과적인 전달 가능	· 전인격적인 교육	· 체험을 통한 높은 교육효과

<표 3-2> 각국 군대의 정신교육 비교

제 3 절 북한군과 외국군의 정신교육이 주는 시사점

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이 주는 시사점

1) 북한군 정치사상교육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활용시스템 구축

북한군에서는 군관 및 장령급 이상 간부와 하전사 등 신분별로 내용이 차별화 된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하달하고 있으며, 각 단위 부대별로 정치군관과 정치지도원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후에는 대상별 교육자료를 즉시 회수하여 문건의 유형에 따라 상급부서에 반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등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사상교육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장병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분석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학습제강과 강연자료의 획득을 위한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 자료들은 분실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에는 간첩죄 등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는 등 사용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획득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전쟁준비 실태, 내부 기강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응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획득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시기별·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한 적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 자료는 장령 및 군관용과 하전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군관급 이상 교육용 자료에는 국내외 정세와 군 내부의 다양한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교육내용과 수준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기별·대상별 교육 내용을 적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군의 간부교육 및 병교육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관계 변화와 교육내용의 상호 연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 정치사상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나 대외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 북한군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응교육자료의 제작 및 이를 전군에 전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군 사상교육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장병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시사안보교육 시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부 주관 부서에서 교육 자료를 간부용과 병사용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제작 배포한다면 활용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2) 북한군 사상전력의 취약점에 대한 비판교육 강화

우리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적관과 필승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북한군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군 사상전력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에 대한 비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언과 정치사상교육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북한군 사상전력의 취약성을 요약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상교육을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 체제의 유지와 권력 세습화를 위한 주입수단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저항세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속적인 긴장감 유지와 전쟁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개인의지의 봉쇄를 위한 수단으로 정치사상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시된 일방적인 교화교육의 성격을 띠

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된 비인간화 교육이고 정보의 차단 및 왜곡으로 사고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사조 유입에 따른 사상적 이완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 내부에도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의 우세한 전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등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강력한 차단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정치사상 교육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넷째, 강압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인해 북한군 내부의 이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고, 군 간부의 인사 비리 및 특권의식으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사상 검토사업에 따른 불만과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탈영자의 증가, 자포자기와 무사안일 및 요령주의 확산 등 군 기강해이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난에 따른 보급지원 체계의 부실문제가 북한군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의 노후에 따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식량과 보급품의 부족으로 욕구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군 내부의 단결력과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의 정치사상 교육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비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사상교육의 체계와 교육 방법 및 교육내용 등 전반적인 교육실태와 함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북한군 내부 실상에 대한 폭로교육 강화

북한군의 본질적인 속성과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비리 및 병폐 현상 등에 대한 폭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군 간부의 특권의식과 비리로

인한 불신, 성분 구분 및 사상검토사업에 대한 불만, 장기복무에 따른 자포자기 심리, 요령주위와 형식주의 만연,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군 기강 해이 확산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군은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닌 김정일의 사병집단인 동시에 당의 군대로 전략한 지 오래다. 즉, 김정일을 무력으로 결사옹위하는 것을 최고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절대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복종, 총폭탄 정신과 자폭정신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군의 현실을 정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와 3대 세습체제의 부당성과 반민족성에 대한 비판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세습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김정일 정권의 이중성 속성, 잔악한 인권유린 실상, 반민족적 죄악상 등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상을 정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군의 정치사상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특징은 신분별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의 차별화를 적용하고, 정치활동조와 정치교양활동, 집회활동 등 다양한 조직과 방법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반복교육을 시키는 한편,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독보회를 실시하고, 명예게시판 운용, 벽보부착, 전투속보 활용 등의 방법으로 신념화 및 행동화를 촉구하는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외국군 정신교육이 주는 시사점

1) 지휘관 중심 정신교육 강화

선진 외국군대는 대부분 지휘관 중심 정신교육을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군은 지휘관의 정신교육 책임을 법률과 지침 등에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내적 지휘’ 개념에 의해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

미군의 정신교육 또한 각급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부대에 요구되는 정신교육 소요를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교육 추진을

하도록 평가체계에 의해서 각서로 다짐하게 하고, 윤리조사서 작성을 통해서 실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며, 그 결과 인사 평가에 반영되도록 실용적인 업무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정신교육은 거의 지휘관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또한 지휘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휘관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관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제안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교관 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선진 외국군의 지휘관 중심의 정신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관 요원들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제안 조치를 강구하거나, 교관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군은 정신교육 교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교관의 역량을 중요시 하여 별도로 중앙교관양성학교에서 교관을 양성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얼마나 훌륭한 교관을 양성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교관들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부하들을 전인격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부하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신교육에 임한다.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신교육 활동 전개

미군의 경우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준비하여 병영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연구조사한다. 즉,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 세대별, 부대별로 그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대상자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연구 조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결과 분석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정신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장병들

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전 연구조사를 통하여 교육에 반영함과 아울러 교육 후에도 장병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찾아내 다음 교육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적 보완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체험식 교육방법으로 동기 부여

대만의 정치작전 교육은 체험식 교육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학교 내 역사관, 시청각 교육실, 미술관 등을 설치 운영하고, 현지 견학교육, 웅변대회 및 토론회, 클럽 활동, 독후감 발표, 역사인물 발표회 등 강의, 토의, 실습, 체험 등 배합식 정신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교육과 더불어 체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대만 군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세계 선진국 군대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5) 정신교육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 운영

대부분의 선진국 군은 정신교육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정신전력센터, 미군의 리더십센터, 이스라엘의 중앙교관양성학교, 대만의 정치작전 학교 등은 정신전력의 정책개발이나 교육개발, 그리고 장병교육, 민간기관과의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정신과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 4 장 정신교육 실태분석

제 1 절 군 정신교육 실태 및 분석

1. 대적관 교육의 실태

1) 군인복무규율 및 훈령

정신교육 또는 대적관 교육에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군인복무규율과 훈령, 정훈공보업무 교범이 있고, 매년 국방부로부터 각급 제대까지 시달되는 연도 정훈공보 활동 지침 등을 들 수 있다.

군인 복무규율에서는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로서 적과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³⁴⁾으로 정신교육의 3대 영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정훈·문화활동 훈령’(1323호, 2011.4.20.) 제1장 제2조는 “장병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의 사기 진작, 정서 함양, 교양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무형전력을 강화하고, 전역 후 건전한 안보관을 견지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³⁵⁾고 하여 정훈 문화활동의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병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분야가 정훈교육으로서, 이 훈령 제7조를 보면, 정훈교육은 국가관·안보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장병의 국가관·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정훈교육과 장병의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 시사 안보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시사안보교육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34) 군인복무규율(대통령 제17158호, 2001. 3. 27) 제4조 7항.

35) 국방부(2011), “정훈·문화활동 훈령”, 『국방부 훈령 제1323호』, 서울: 국방부, 제2조

36) 상계서, 제7조

한편, 육군에서 2007년도에 발간한 정훈업무 교범에서는 정훈교육의 개념과 목적, 범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정훈교육이란 정신교육의 일부로서 대적필승의 신념을 견지한 정예 육군 장병 육성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견지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신병교육, 부대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기조로 하여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훈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정훈교육의 목적은 “군사적 위협 능력이 변하지 않는 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훈교육의 범위를 “군인의 가치관과 행동 규범의 지표인 군인정신,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국가수호의지를 제고하는 국가관, 적 개념 및 북한의 군사위협 실체를 인식하는 안보관을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특히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 실태와 전쟁위협 요인을 주지시키고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라고 하여 대적관 교육의 목적과 포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³⁷⁾

이 외에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주요 안보현안문제가 발생하거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경우 상응한 정훈교육 계획과 지시를 수시로 하달해 줌으로써 대적관 교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국방백서

국방백서는 국가의 확고한 국방태세와 국방정책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들이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발간 중인 정책자료집으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실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국방 목표가 제시되고, 대한민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성격 규정이 포함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현역 장병들의 대적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7) 육군본부(2007), 『정훈업무』, 대전: 육군본부, p.3, 7~9.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주된 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적'이란 용어를 삭제하였다. 물론 이는 당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한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 내부적으로는 대적 경계심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국방백서가 또한 군 정훈교육 또는 대적관 교육에 결정적인 준거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2010년 12월 31일 발간한 「2010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백서 제2장 제2절 1항 '국방목표'에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백서는 이어서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대한민국과 국군의 ‘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⁸⁾

그런데 2010 국방백서가 발행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위협과 관련한 표현에 주적 또는 핵심적인 위협세력, 제1의 적, 핵심적인 적 등의 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 문서라

38) 국방부(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34.

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린 것”이라며 “어찌 됐건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은 군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³⁹⁾

국방부가 이렇듯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비로소 군 장병들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강화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군 대적관 교육의 근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훈령(1323호)



국방백서

정신교육 기본교재(교관용)

정신교육 기본교재 (신병용)

국방부 당해 연도 정훈문화활동 지침



육군본부 정훈공보업무 교범/규정

육군본부 당해 연도 정훈공보활동 지시

<표 4-1> 대적관 교육의 근거

대적관 교육은 요컨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 국군의 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장병들의 안보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39) 연합뉴스, 2010.12.27. “국방백서에 주적대신 ‘적’ 표기 배경은”

이처럼 중요한 대적관 교육을 포괄하는 정훈교육의 목적 및 방향, 내용 등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매년 훈령이나 지침으로 시달한다. 육군본부에서는 국방부 훈령 또는 지침을 토대로 하여 각급 부대에 관련 지시를 하달하게 되는데, ‘2011년도 육군 정훈공보활동 지시’에 근거하여 각 병과학교 과정과 정훈장교 과정 등 학교 교육과 부대교육을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 대적관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적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지침에 근거하며, 각 신분과 계급에 맞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1) 각 병과학교 양성 및 보수과정

육군은 정훈교육 목표를 ‘군인다운 군인 육성’에 두고 첫째, 필승의 대적관 확립 및 군인정신 무장, 둘째 확고한 안보의식 및 역사관 정립, 셋째 건전한 국가관 및 민주시민의식 정립 등 세 가지 중점을 추진한다. 정훈교육은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실시한다고 전제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정훈교육은 과정별로 명시된 통제 과목(대적관 포함)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가용시간의 3.5%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과정별 교육 목표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장교 양성과정은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교육 내용 이해 및 숙지를 목표로 하며, 보수과정에서는 초군반 및 고군반 동일하게 올바른 안보상황 및 북한실체 인식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육군대학에서는 중견간부의 안보관 확립에 교육목표와 요망 수준을 둔다. 한편 부사관 양성 과정에서는 《신병 정신교육기본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교육이 진행되고, 보수과정에서 올바른 안보 상황 및 북한 실체를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장교·부사관 양성과정, 사관학교 생도과정은 기본정훈 18개 과제를 정과 시간에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각 병과학교 보수과정은 ‘올바른 안보상황 및 북한실체 인식’을 위해 기본정훈 18개 과제와 연계하여 개선한 교관

정신교육지도서(한국 근·현대사, 북한실체, 한반도 안보현실 등)를 중심으로 교관 이론 강의(70%), 분임토의 및 주제발표(20%), 강평(10%) 순으로 진행한다. 대학과정은 증견간부로서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이해 및 논리적 설명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 과목을 편성, 교관에 의한 강의, 발표 및 토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2) 정훈장교 보수과정

종합행정학교에서 실시하는 정훈장교 보수과정은 ‘전문 교관능력 구비’를 위해 선행학습(북한학 정독), 강의, 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주제발표, 연구강의, 강평 순으로 실시하며, 전문 교관능력 구비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개설된 과정별 대적관 관련 과목 현황은 <표 4-2> 와 같다.

<표 4-2> 종합행정학교 과정별 대적관 관련 과목/시간 편성 현황⁴⁰⁾

구 분	초군반	고군반	영관반	육대단기 과정반	정신교육 교관반	안보전문 교관반	부사관 초급반
북한실상	36	52			2	2	6
대남전략	24	30	8			10	6
통일정책	12	20	8			10	6
한국안보	16	28					
국가안보론				80			

위 표에서 보듯이 종합행정학교에서는 초군반을 비롯해서 총 7개 과정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각급부대에서 대적관 교육 관련 참모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정훈장교 보수과정과 안보전문교관반의 교육 목표와 중점 교육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 육군종합행정학교(2011), 『2011년도 학교교육계획 정훈과정 MPT편성』, 서울: 종행교.

첫째 초군반은 정훈병과 임관장교를 대상으로 대적관 신념화 및 교관 능력 숙달을 위하여 ‘북한 실상’ 과목에서 공산주의의 개념 이해,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주체사상 이해, 선군정치와 주민생활 이해, ‘대남전략’ 과목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이해, 대남 도발사례의 의도 비판, ‘통일정책’ 과목에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 남북한 통일문제 숙지, 통일문제 교관능력 구비, ‘한국안보’ 과목을 통한 대적관 교관 능력 및 연대급 이하 정훈공보업무 수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교육 방법은 강의-토의/실습-초빙-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 고군반은 정훈병과 대위급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목표는 사·여단급 이상 정훈공보업무 직무수행 및 전문교관 능력 구비에 두고 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실상’과목에서 공산주의의 개념 이해,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주체사상 이해, 선군정치와 주민생활 이해, ‘대남전략’ 과목에서 공산주의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이해, 적 실체인식 및 대적관 신념화, ‘통일정책’ 과목에서 북한 통일관 및 연방제 허구성 인식,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통일문제 교관 능력 구비, ‘한국안보’ 과목에서 국내외 안보위협 실체 인식, 안보관 확립, 안보문제 교관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둔다. 교육 방법은 강의-문답-실습-초빙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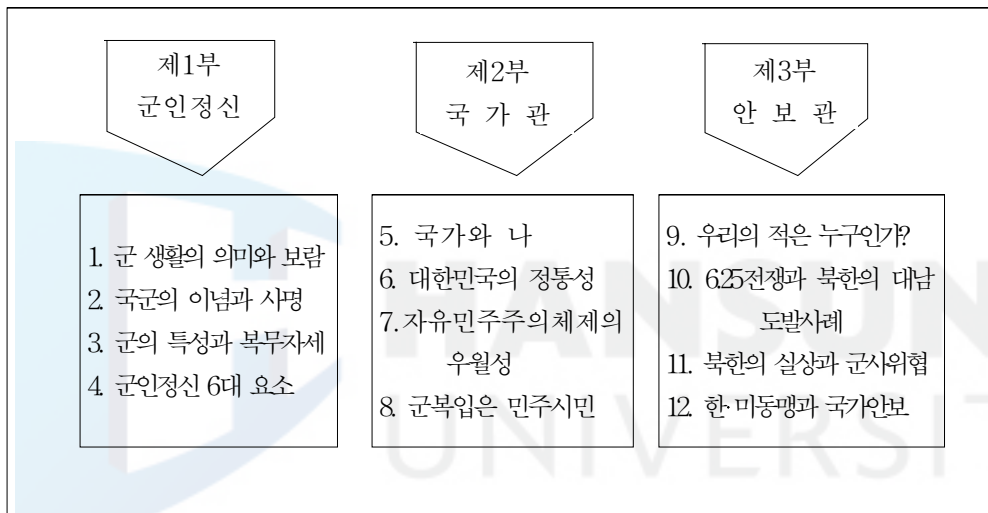
셋째, 안보전문 교관반은 각급 부대에서 안보교육 전문 교관임무를 수행하는 중·대위급 위관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목표는 안보전문 교관 능력 구비에 두고, 명확한 적 실체 이해, 안보 전문교관 배경 지식 숙지 등을 위하여 ‘대남전략전술’ 과목에서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 이해, 김정일 체제의 대남전략 실체 인식, ‘북한 실체’ 과목에서 북한 주요 현안 분석, 대적관 확립을 위한 PPT교안 작성, ‘통일안보’ 과목에서 주변국의 정책과 군사동향 이해, 최근 북한정세 이해, 한반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육 방법은 강의-토의-초빙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3) 신병 대적관 교육

신병 정훈교육은 군이 요구하는 가치관이 확립된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신병 정신교육 교재’ 12개 과제를 이해 및 숙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는 최근에 기존 신병교육 5주 과정에 제 2 신교대 3주 과정을 신설 운용하는 등⁴¹⁾ 제도의 변화가 있어 신병에 대한 대적관 교육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 기본교재 및 교보재

신병교육을 위한 교재는 2008년도에 「신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다. 신병교육의 초점은 ‘군인 만들기’에 있으므로 제 1부 군인정신을 시작으로 제2부 국가관, 제3부 안보관 등 총 3부 12개 과제로 편성되어 되었다.



<표4-3> 신병 정훈교재 과제 현황

제 3부 안보관이 4개 과제로서 그 가운데서도 대적관 관련 과제가 3개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 이전 교재인 2004년도 발행 ‘신병 기본정훈 교육 교재’와 비교해 보면 대적관 과제가 1개 과제 증가했다는 점을

41) 육군은 2011년도부터 육군훈련소 또는 제1신교대에서는 제식훈련과 개인화기, 각개전투, 체력단련, 구급법 등 9개의 핵심과목을 교육한 뒤 제2신교대로 보내 3주 동안 개인화기와 각개전투, 전투체력 훈련을 추가로 집중적으로 받는 식으로 신병교육 훈련체계를 개선하였다.

알 수 있다. 즉, 이전 교재는 제1부 군인정신, 제2부 국가안보로 구분하여 총 12개 과제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대적관 내용은 제2부 국가안보 편에서 제9과 우리의 적, 제10과 적의 실체 등 2개 과제에 불과하였던 데 비하면 신병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대적관 교육을 충실하게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병 기본정훈 교재는 휴대용으로 별도 제작하여 신병교육시 개인에게 지급하여 교육시 활용하고 있다. 42)

- 교육 시간 운용

신병에 대한 대적관 교육은 전반적으로 정훈교육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기존 5주과정과 제2신병교육대 3주과정으로 구분되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어 신병들에 대한 대적관 교육 여건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신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 신병교육대에서 5주 과정을 수료하고 제2신병교육대에서 3주 과정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우선 신병 교육 기간 5주 동안 정훈교육은 기본정훈교재 12개 과제 강의 22시간, 특강 2시간, 참여형 교육 3시간, 평가 1시간 등 총 30시간으로 편성되어 신병교육 기간 중 1~3주차에 집중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⁴³⁾ 이 중에서 특히 대적관 관련 교육은 기본정훈교재에 포함된 4개 과제 이외에도 국방대 교수 초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형 교육은 대적관 발표문 작성 및 발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병교육 표준교육 일과표 : 부록6 참조)

제2신병교육대 3주과정은 정과시간 가운데 14시간을 반영해서 정훈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전술 2시간, 북한 군사위협실체 2시간, 북한 실상과 주민생활 실태 관련 초빙교육 2시간 등 6시간이 대적관 확립을 위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 진행 방법

대적관 교육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본정훈 교육 방법과 동일하다. 신병

42) 육군본부(2011), “신병정훈교육”, 『2011년도 정훈공보활동 지시』, p.5.

43)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4주 과정 신병정훈교육은 정과 19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 방법은 각 과제마다 서론 → 영상교재 시청 → 핵심강의(CBT) → 질의 및 응답 → 결론 순으로 진행하며, 3시간 동안 ‘대적관 발표 및 결의대회’ 형식의 참여형 교육은 발표문 작성 → 우수 발표문 선정 및 발표 →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함으로써 병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념화 및 행동화를 유도하고 있다. 제2신병교육대 3주과정의 대적관 교육은 기존 신병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과목을 편성해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반복교육은 물론 실증적인 교육을 통하여 입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의식의 변화 내지는 대적 경계심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입대 신병들을 순수 민간으로부터 군인다운 군인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이 누구이며, 그 적의 실체적 진실은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고 신념화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부대 대적관 교육

- 교재 및 교보재

부대교육용 교재는 2008년에 「(교관용 교육지도서)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이자 ‘중심’이 되는 교재이다. 부대 정신교육은 물론 학교기관 및 신병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의⁴⁴⁾ 기준서이자 교관용 교육지도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교재는 2011년 현재 각급 부대의 기본정훈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바, 각 장별 세부과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4) 국방부(2008), 『정신교육 기본교재』, 서울: 국방부.

<표4-4> 부대 정훈교재 과제 현황

제1부 국 가 관	제2부 안 보 관	제3부 군인정신
1. 국가와 나 2. 유구한 우리의 역사 3.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통성 4.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 5. 군복입은 만주사민 6. 통일조국의 미래상	7. 21세기 안보환경 8.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9.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10. 북한의 실상 11. 북한의 군사적 위협 12.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13.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군 14. 국군의 이념과 사명 15.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16. 군조직의 특성 17. 전통적 상무정신 18. 군인정신 6개요소

이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기본정훈교육 자료의 중심교재로서 장병용 기본교재는 매주 목요일 국방일보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바로 교관용 교육 지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사적인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 장병 개개인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교재를 보충하기 위한 국방정신교육 자료집과 국방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정훈교실’ 교안을 지원하고 있고, 수시로 영상교재 및 만화교재도 제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일정훈교육교재용으로 생활화 정신교육자료집⁴⁵⁾ 등도 각급 부대에서 실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 수시로 국방부 교육 지침 범위 내에서 각종 교재 및 교보재를 제작하여 각급 부대에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는 장병 신념화 영상교재 8편, 2010년에는 15편의 영상교재를 제작 지원하였으며(영상교재 목록 : 부록 5-1,5-2 참조), 2011년에는 육본 정신교육 핵심과제 자료집 ‘누구로부터 무엇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제작 지원하였다.(부록4 참조)

45) 국방부는 2009년 생활화 정신교육 자료집 1권(‘10minutes’)과 2권(‘맛있는 인생’)을 펴내 각급 부대에 배포하였다.

- 교육 시기 및 시간

한편 부대 정훈교육은 일일 정훈교육, 주간 정훈교육, 반기 집중 정훈교육, 간부 정훈교육, 그리고 초빙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일일 정신교육은 하루 일과 성찰 및 복무 결의 다짐 등을 통해 복무 적응을 유도하고 부대 단결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매일 취침 전후 10분 내외로 일과 전과 점호시에 일직사관이 교관이 되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일일 정신교육과 명상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주간정신교육은 수요일 오전에 실시하되⁴⁶⁾ 연간 36주 이상 편성한다. 훈련, 행사 등의 이유로 월요일 오전 교육 제한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일정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군TV방송 지원이 제한되므로 자체 녹화하여 시청할 수 있다. 반기 집중 정신교육은 반기 1회 대대 단위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기본정훈 보충 및 부대단결, 문화활동, 대적관 교육, 인성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대적관 교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일정훈교육은 매일 취침 전후 10분 내외로 필승의 전투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 내용으로 균형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일일정훈교육은 부대 여건과 지휘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적이나 성과 또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주간 정훈교육은 전투부대의 경우 연 36주 이상을 목표로 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에 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적관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정훈교육과 시사안보교육은 매주 2교시와 3교시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46) 국방부 정신전력과-1632('11.7.15) 주간정신교육 요일 변경 시행지시에 근거, 육군에서는 2011년 9월1일부로 주간 정훈교육을 수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분	2교시 (09:00~09:50)	3교시 (10:00~10:50)	4교시 (11:00~11:50)
과 목	기본정훈 (정훈교실)	시사안보/역사교육 (명강특강)	문화단결활동

<표4-5> 주간 정훈교육 시간편성

* 자료 : 육군본부. 2011년 정훈공보활동 지시.

반기 집중 정훈교육은 대대 및 독립중대 단위로 반기 1회(연2회) 전투부대의 경우 4박 5일(40시간)을 실시하는데, 대적관 교육은 안보관과 함께 육군본부 통제 과목으로 10~8시간 편성되어 있다. 과목별 시간편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계	육군 통제 과목				지휘관 위임 (단결활동, 기타)
		국가관	대적관 안보관	인성교육	교육준비	
전투부대	40H	6H	10H	9H	5H	10H
기행부대	24H	4H	8H	6H	3H	3H

<표4-6> 반기 집중정훈교육 시간 편성

* 자료 : 육군본부. 2011년 정훈공보활동 지시.

대적관 교육은 이외에도 대대급 전문인력 초빙교육이 반기 단위 2시간씩 편성되어 있다.

● 교육 방법

부대교육시에는 전투부대의 경우 기본정훈 교육 시간인 2교시(09:00~09:50)와 시사안보교육 및 역사교육 시간인 3교시(10:00~10:50)에는 국군 TV에서 방영하는 ‘정훈 교실’(20분)과 ‘명강 특강’(30분)을 시청한 후 국방일보 게재된 자료를 윤독하고 토의를 하는 방법으로 전군이 표준화 되어 있다. 대적관 교육의 방법이 어떠한 형태이든 그것은 교관에 의해 주도되는데, 대

적관 교육에 있어 교관의 위치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간부는 중대장과 정훈장교이다. 신병 교육 부대에서는 정훈장교 외에 중대장과 대대장이 과제를 분담하고 있으며, 부대에 따라서는 사단의 정훈공보참모가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대 교육 중 주간정신교육은 주로 중대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반기 집중정신교육 시에는 정훈장교가 일부 과제를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군 TV방송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는 한편, 국방일보 교재나 영상교재 등 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 교육 준비(강의)에 대한 교관의 부담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반기 집중정신교육은 다른 어느 교육 시기보다 대적관 교육(전투 부대 8시간)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육군본부 통제과목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교육 실시 요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진행도 기본정훈교육 중 미실시 과제나 대적관 신념화 교재의 과목에 대해 기본정훈교육 실시 요령에 준하여 과목 소개 → VCR 시청 → 과제 관련 교육자료 윤독 및 토의 → 결론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의주장 발표대회, 도전 골든벨, 전사적지 견학, 초빙강연 등 부대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5) 대적관 교육의 문제점

• 학교 대적관 교육

앞 절에서 제시한 지침/지시에 따라 각 학교기관에서는 대적관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에서 각급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정훈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교별 기준시간 3.5%보다 확대 편성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강의에 비하여 실습 시간이 부족하여 소대장이나 중대장 부임 후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⁷⁾

예를 들어 보병학교 초군반의 경우 2010년에는 기본교재 18개 과제에 대한 자기 신념화 및 병 지도 능력 구비를 목표로 강의 19시간 실습 8시간 평가 1시간 등 총 28시간을 정훈교육에 할당하였으나, 개인별 과제 발표는 2

47) 육군본부(2011), 『2011년도 전반기 지도방문 결과』.

개 주제에 대하여 불과 10분만 부여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교관화 실습을 위한 시간은 과정 총 616시간 중 8시간으로 체험 수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교관 능력 향상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고군반의 경우도 중대급 전담교관 능력 구비를 교육 목표로 정신교육 기본교재 18개 과제에 대하여 총 34시간 중 9시간만 핵심 위주 강의 후에 교관화 실습 차원에서 토의 발표를 24시간 할당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1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시간이 초군반은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고군반은 34시간에서 32시간으로 4~2시간씩 축소되었다.⁴⁸⁾

교육 주기도 최소한 교육 4~5주차 이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첫 주 또는 중간에 편성되어 있어 예습 지시 등 교육생들의 교육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어 교육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류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공병학교	통신학교	군수학교
초군반	교육기간	16주	16주	16주	16주	16주	16주
	정훈교육	첫주/중간	첫주	중간	중간	첫주	첫주
고군반	교육기간	23주	23주	23주	22주	22주	22주
	정훈교육	중간	첫주/중간	중간	중간	첫주	첫주

<표4-7> 학교별 정훈교육 주기 편성 현황

한편 교육 방법도 2010년에는 강의 30% 주제토의 및 발표 70%였으나, 2011년에는 반대로 강의 70%, 주제토의 및 발표 30%로 뒤바뀌었다. 교육생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니 제대로 된 발표가 되지 않아 교관의 강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방침이 바뀐 결과이다.⁴⁹⁾

48)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행정학교 등 모두 초군반은 24시간, 고군반은 32시간을 정훈교육 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49) 교육사령부(2011), 『학교정신교육 체계 개선 결과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사에서 2011년도에 각 병과학교 고군반의 경우 기존 강의 30% 실습 70% 방침을 뒤바꾸어서 강의 70%, 실습 30%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육군대학에서는 안보관 8시간 등 14시간이 할당된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본 정신교육 교재 18개 과제 중 4개 과제를 선정해서 강의 8시간, 토의 발표 6시간으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평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실태이다.

한편, 각급부대에서 참모 업무와 함께 전문화된 교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훈장교들에 대한 교육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교관 전문화를 위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군반의 경우 총 614시간 중 56시간이 실습 시간으로 교관 능력 구비를 위한 여건은 다소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초군반의 경우에는 총 406시간 중 교관화 실습은 36시간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정훈공보 실무 능력 구비를 위한 시간에 비해서 교관 능력 구비를 위한 시간 편성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⁵⁰⁾

이와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사령부는 2011년도부터 ‘학교 정신교육 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①과정별 기본정훈교재 중심 과제형(18개)을 새로 편성한 한국 근현대사, 북한 실체, 통일정책, 한국 안보 등 4개의 과목형으로 전환하며, ②과정별 목표(주안)을 재설정하고, ③교육 방법을 교관 중심 강의 위주(강의70%, 주제 발표 및 토의30%)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적관 교육 관련 각종 제도 및 운영, 현 실태 등의 실태를 토대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적관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별 교육 목표 및 요망 수준이 모호하다. 현재 육군본부에서 시달한 각 병과학교의 초군반 및 고군반에 대한 교육 목표는 ‘올바른 안보상황 및 북한 실체 인식’을 기본으로 초군반은 ‘주간정훈교육 토의 및 발표 진행 능력 구비’, 고군반은 ‘정훈교육 계획 수립, 강평 및 결론 유도 등 진행 능력 구비’로 설정되어 있다.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이 교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비교적 과정별 교육 목표는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 제1야전군사령부(2010), 『정신적 태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시범식 교육』, p.12.

그러나 각 병과학교에서는 고군반의 경우 2011년도 교육 과정부터 사실상 ‘교관 능력 구비’라는 목표를 삭제하고 ‘올바른 안보상황 및 북한 실체 인식’을 위한 ‘관련 과목 이해’로 변경하는 한편, 정훈장교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안보 및 대적관 교관 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여 교육하도록 전환하였다. 변경 이유는 교관 능력 구비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과 18개 과제 위주의 교육으로 역사관이나 대적관, 통일정책, 안보관 등 종합적인 안보의식 제고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 야전부대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장교들 개개인의 신념화를 통한 교관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교관 능력 구비’라는 교육 목표를 포기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과제이다. 어차피 ‘교관 능력 구비’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바에는 교육 여건에 맞도록 목표 자체를 수정하여 장교 개인의 신념화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관으로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역시 그 타당성 여부는 향후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교육 주기가 부적절하다. 교육사령부에서는 각 병과학교의 ‘교관 능력 구비’라는 교육 목표를 삭제한 주된 이유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꼽았다. 2011년도 현재 각 병과학교 초군반은 24시간, 고군반은 32시간을 정훈교육에 할당하고 있다. 과정 총 가용시간 면에서 보면 초군반 600시간 중 4.0%, 고군반 864시간 중 3.7% 수준으로 육군 본부 지침 3.5%에 비해서는 약간 상회하는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시간으로 기본정훈교육 18개 과제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하여 야전에서 요구하는 교관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주기도 대체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교육 실태를 살펴 볼 때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대부분 교육 입교 후 첫주 또는 중간에 정훈교육이 편성되어 있어 교육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망각 주기를 고려하지 않

은 편성을 함으로써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시간 및 주기 편성 문제를 교육 과목과 교육 진행 방법, 평가 방법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사항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다. 각 병과학교에서는 2010년까지는 기본 정훈교육 18개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숙지 위주로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이토록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도 제한되었고, 역사, 대적관, 안보관, 통일정책 등 종합적인 안보의식을 제고하기가 곤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2011년도부터는 18개 과제를 한국 근현대사, 북한 실체, 통일정책, 한국 안보 등 4개 과목형으로 재편성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4개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하기는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실체’라는 과목에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배경 이해, 북한 공산 정권 수립,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북한실상과 주민생활, 대남전략전술, 대남도발과 우리의 자세 등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 안보’ 과목에서는 ‘북한 위협’, ‘국내 위협’, ‘주변국 위협’ 등 ‘안보 위협’과 ‘우리의 대응’분야로 구분하여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대적관과 안보 분야만 해도 과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앞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교육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관 중심 강의 위주의 일방적 교육 방법이다. 2010년까지는 기본 정훈교육 18개 과제에 대하여 강의 23%, 분임토의 및 주제발표 77%의 비중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토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인데, 학생 장교들의 배경 지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토의/발표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데다가,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제 교관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⁵¹⁾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게 위한 조치로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

51)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인원의 60%가 교관 임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호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과목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였다.(교육사령부, 위 보고서, p7-5)

대로 강의 비중을 70%로 증가시켜 전반적인 안보상황 및 북한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평가도 필기 평가 20%, 주제발표 70%, 과제물 평가 10%에서 필기평가를 70%로 대폭 높이고 주제발표 내용은 20%로 비중을 낮추는 조치를 하였다.

다시 말하여 토의 발표식 교육 방법을 교관 중심 강의 위주의 방법으로 변경한 것인데, 아무리 기존 교육 과정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택된 교육책이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성인교육 이론이나 수용자 중심 교육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교육 트렌드를 감안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정훈교육이나 시사안보교육 등 정훈교육을 주관하는 지휘관으로서,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또는 교관으로서 학생 장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야전 부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보수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육체제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6) 부대 대적관 교육의 문제점

일일정신교육은 지휘관 의도를 가장 많이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관심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시행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지휘관의 관심 부족은 결국 대적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성과 있는 교육 내용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건 조성을 위한 당직계통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취침 전후 시간을 활용하는 ‘명상의 시간’은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주간정신교육은 현재 각급 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교육 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육군 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가 2010년 10월에 이병~중위 1,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간정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이병 65.9%, 병장 72.7%, 소위/중위 77.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군TV ‘정훈 교실’과 ‘명강 특강’ 시청 빈도도 20~40% 등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토의가 잘 이뤄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답변은 각 계급별 54.2~59.6%에 불과하였다.⁵²⁾

각급 부대별 주간정신교육 운영 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은 최근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실태 지도방문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연간 36주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 연간 30주~42주 등 부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간부들의 교육 참여가 부족하거나 교관 준비 점검도 부족한 데다 국군 TV 시청시 교관이 타 업무를 이유로 교육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토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주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⁵³⁾

그렇다면 대적관 교육 실태는 어떨까? 육군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필승결의 동계집중정신교육’을 추진하였다. 2010년 12월 6일~2011년 1월 14일에는 1차로 선 간부교육을 4시간 프로그램으로 완료한 후 2011년 1월 10일~2011년 2월 25일에 2차로 대대 단위 1일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병 교육을 완료하였다. 이때에는 제대별 지휘관 주관 간부 워크숍과 소집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되, 부대별 순회 토론회, 연대장급 이상 토론회,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특강식 순회교육, 정훈장교 격오지 순회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탈북자나 참전용사 초빙강연과 전투 참가자 수기집 낭독, 안보현장 견학 등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병영 내에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등 대적관에 관한 시각 표현물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하였다.⁵⁴⁾

이와 같은 특정 기간 집중 교육으로 인하여 성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육군 00부대를 대상으로 2011년 5월 30일 면접조사한 결과 육군 장병들의 대적 필승의 적개심은 9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52) 국방부 정신전력강화위원회(2010),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정신교육 개선방안』, 서울: 국방부.

53) 육군본부(2011), 『2011년도 전반기 지도방문 결과』 참조.

54) 상계서 참조

군과 북한정권이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인식'(99%)하고 있으며,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해 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97.5%)으로 파악되었다.⁵⁵⁾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 집중 교육의 성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하려면 일일정신교육과 주간정신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부대교육의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훈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훈교육의 성과를 저해하고 정신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근래에 들어 '정신교육의 날' 시행 요일과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요일 오전 정신교육의 날'체제가 1977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 금요일 오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으로 나뉘어져 시행되다가 2010년에는 다시 월요일 오전으로 조정되어 실시되던 중, 또 다시 2011년 9월 이후 현재에는 수요일 오전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과 3~4년의 단기간에 수차례 정신교육 실시 요일이 일관성 없이 오간 것은 '수요일 오전 정신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훈련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근거 없는 이유에서 초래된 것이었다. 특정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교육 또는 정훈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교육과 교육훈련의 관련성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 이외에도 국가안보와 정권의 안보가 동일시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 정신교육이 정부의 정당성을 주입하는 정치교육으로 전락했던 경험에 기초하거나, 2000년대 이후 대북포용정책 이후 북한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민족으로 보는 성향이 강화되면서 군 정신교육과 정훈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정훈교육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지

55) 육군본부(2011), 전계서

휘관 중심 정신교육체제' 하에서도 특히 정훈교육은 정훈참모의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는 한편, 일반 간부들에게는 열외의식이 형성되고, 병사들에게조차 정신교육, 정훈교육은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기 유발과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지휘관의 교관 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 어렵다. 대적관 교육의 교관 역할은 주로 중대장과 대대장이 맡고 있다. 신병교육의 경우 정훈장교나 대대장이 과목을 분담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중대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대대장은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특강식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그런데 대적관 교육에 있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전문지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011년도부터 각 병과학교에서는 장교들의 과목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해 주기 위하여 '올바른 안보 상황 및 북한 실체 인식' 등 '관련 내용 이해'를 교육 목표로 정하여 강의 비중을 70%로 높여 교육을 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의 실태 파악에 의하면 아직도 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관들의 자신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육군 종합행정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안보교육 전담 교관반 이수자도 극히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위급 장교를 교관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야전부대 대대/연대급 정훈장교는 대부분 중·소위로서 인성적 특성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대장들의 경우 육군대학 과정에 대적관 관련 과목이 아예 편성되지 않아 개별적인 자습에 의한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 등 대적관 교육에 대한 지식이 다른 여타의 장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부대 지휘 또는 관리 분야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번 교육을 직접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런 입장이다. 그렇다면 야전 각급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각급 지휘관들의 교관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대 실정상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과거와 같이 간부 소집교육이 자주 있지도 않을뿐더러 대적관 교육 교관화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중대장이나 대대장 등 교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개별적인 학습을 통해서라도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병사들의 동기 유발과 흥미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셋째, 교관 중심의 교육 진행으로 학습자와의 쌍방향 교육이 곤란하다. 군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⁵⁶⁾이다 보니 정신교육의 일환인 대적관 교육 역시 교관 중심의 수업방식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교관 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이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교관에게 있다.⁵⁷⁾

교관 중심의 교육은 행정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시간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탐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려우며 학습자들의 흥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없어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대적관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자료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하달되어 예하부대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되도록 짜여져 있다. 그러다보니 부대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된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교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역할도 감독자, 통제관의 범주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국군 TV방송을 통하여 ‘정훈교실’과 ‘명강 특강’을 기본정훈교육과 시사안보교육 시간에 시청하는 등 TV라는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지만, 형식은 역시 교관에 의한 강의식(주입식)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행 방식 역시 어떤 경우에는 과목과 연관성이 없는 ‘명강 특강’ 등 TV를 시청하고 난 다음 국방일보 교육 자료를 윤독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국방일보 교육 자료를 윤독하고 토

56) 육군본부(2007). 『정훈공보업무규정』, 대전: 육군본부. p.4.

57) 박숙희(2000).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pp.16~19.

의를 하거나 반기 집중 정신교육 시에는 퀴즈게임과 같은 이벤트성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형식과 방법이 부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병사들의 학습동기 부여 곤란하며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요즘 병사들이 기반을 이루는 청년세대는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활발한 인성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개성을 존중하며, 자기표현이 분명하다. 그만큼 무엇을 하든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장병들의 특성을 대적관 교육에도 최대한 접목해서 기획하고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물론 기본정훈교육과 시사안보교육 등 과목마다 발표 및 토의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병사들의 참여는 매우 수동적이고, 참여 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더욱이 교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병사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흥미를 이끌어 내기가 곤란하다.

국방부에서 5년 단위로 발간되는 정훈교육 기본교재는 안보현안이 발생하거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교육을 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기본정훈 교육 자료는 기본교재를 바탕으로 사례 위주로 제작하고, TV 강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국방일보 자료는 모든 장병에게 배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국군TV 방송의 ‘정훈 교실’이나 ‘명강 특강’은 사전에 녹화된 내용을 방영하다 보니 시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시사안보시간에 시청토록 되어 있는 ‘명강 특강’은 그날의 과목과 상관 없는 내용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대적관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교육환경은 학습 환경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명백히 학습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또 어떤 환경적인 요

인은 학습을 증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흥미나 태도, 그 밖의 성격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근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결정해주는 데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환경은 개인에게 변별력을 길러주기도 하나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학습 환경이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고 정서적이며 민주화된 분위기가 깃든 공간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학습 자료와 도서가 비치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명과 작업능률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학습 또한 조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음향, 특히 소음은 사고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음악이나 이야기 소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⁵⁸⁾

그러므로 교육의 주체인 지휘관이나 교관은 학습자의 흥미, 능력, 요구 등에 부응하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는 데 관심을 갖고 사회적, 물리적 학습 환경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 환경 자체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며 환경자체가 개개인에게 변별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아 정체감 형성 등 병사 모두를 동일하게 변화시키는 막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학습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부대가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정신교육 장소로 생활관이나 병사식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대 여건상 시설 내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병사식당의 경우 음식냄새와 소음으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 장소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문제는 교육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활용하는 장비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각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GOP나 격오지 부대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한되

58) 박상호(1999), 『교육방법 교육공학』, 서울: 집문당, pp.88~93.

고 있으며, 대다수 부대가 브라운관식 중소형 TV 수상기만 보유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더욱이 최첨단화된 IT기술이 접목된 CBT-WBT-ICT 등⁵⁹⁾ ‘교수-학습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언감생심이며, 영상세대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 기법을 활용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⁶⁰⁾

여섯째, 대적관 교육 전담 기구가 부재하다. 선진국 군대에서는 대부분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양성과정의 상당 부분을 정신교육 시간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연구 및 교육 전담 기구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정신전력센터와 연방군 사회과학연구소, 미국의 리더십센터와 육군 행동과학연구소, 대만의 정치작전학교, 이스라엘의 중앙교관 양성학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군의 경우는 정치사상교육을 군사훈련보다 최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이 정치사상교육을 관장하도록 하고 전 제대에 정치 부지휘관 및 정치군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군의 경우 국방부에 편성된 전담 기구는 미약하고, 관련한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은 부재한 상태이다.

국방부 정신전력 관련 정책 담당 부서는 ‘정신전력과’ 1개과로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국방부는 정훈국,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의 변화를 거쳐서 현재는 교육정책기획관실에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써 정신교육 또는 정훈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동력은 매우 약한 수준이다. 주기적인 정훈교육 교재를 편찬하거나,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응적인 정신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일,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한 선진 교육 기법을 활용한 교육보조 재료를 제작하는 등 교육 지원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정신교육을 위한 예산이 2010년의 경우 국방비 대비 0.089%인 182억 원, 2011년에는 0.090%인 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나타

59) CBT는 컴퓨터가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화 수업체제로서 현재 군 교육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WBT는 인터넷의 웹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전개하는 교수 프로그램, ICT는 정보, 통신, 공학적 HW/SW를 이용한 능동적 교수-학습 방법을 말한다.

60) 김용주(2010),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 개선방안』, 서울: 화랑대연구소.

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정신전력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운영되던 국방정신교육원은 1998년에 국방 운영 합리화 명분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정신전력 관련 연구 업무는 국방대학교 정신전력리더십 개발원 등에서 진행되고, 교육 업무는 육군 종합행정학교로 이관되어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 및 정훈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전담기관이 부재함으로써 정신전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미약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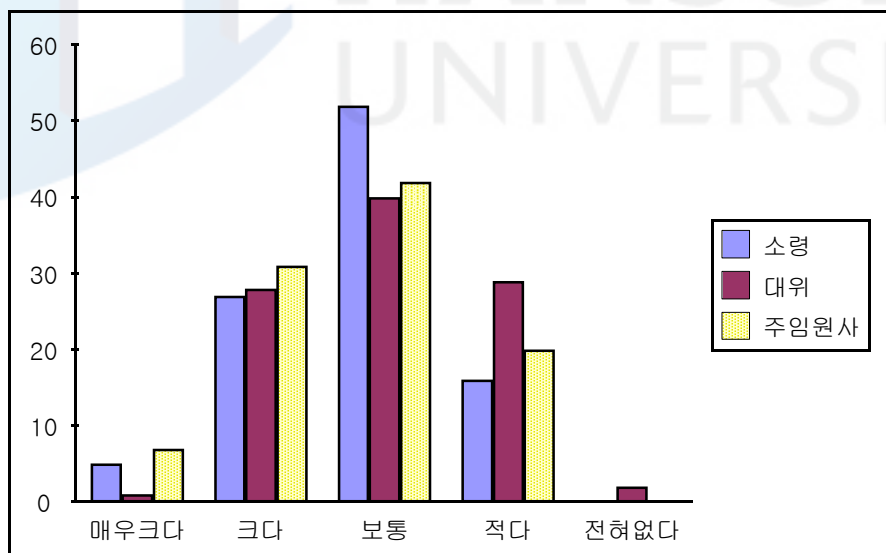


제 2 절 설문지 분석

본 설문지는 현 정신교육의 실태파악을 하기위하여 전문적 과학적인 설문기법이 아닌 본인 임의로 문항과 내용을 설정하여 향후 간부의 정신교육 효율화를 위하여 조사하였으며 공군대학에서 CSC과정의 영관장교 학생(67명)을 대상으로 7월 15일 작성, SOC과정의 대위장교(66명) 대상으로 6월 24일 작성, 보라매리더십센터에서 주임원사과정의 부사관급(51명) 대상으로 8월 12일 실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구성 은 군사학교 정신교육과 현 실시되는 부대정신교육, 정신교육의 필요성, 정신교육 시간량, 평가,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설문지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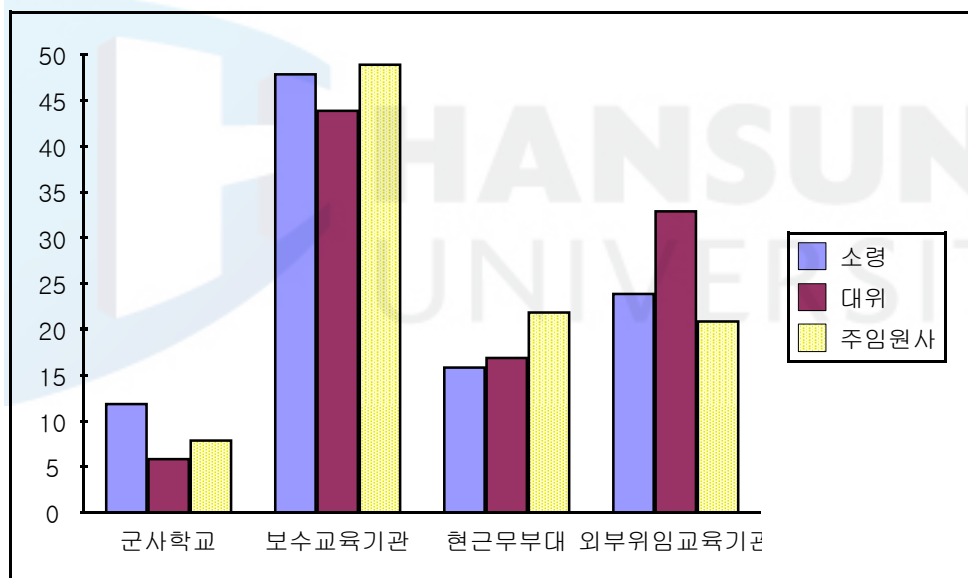
1) 학교(양성과정)에서의 배운 정신교육의 만족도는 계층별 평균이 보통 이하 다소미흡이 72%정도로 나왔으나 학교에서 배운 정신교육이 본인의 군 생활에 끼친 영향력은 계층별로 비슷하며 보통이상인 79~84%로서 적다이하(21~35%)보다 훨씬 높았다.



2) 소속부대의 정신교육 수준은 계급별로 비슷하여 보통 39% 다소 미흡이 31% 순이었으며 미흡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정신교육체제미흡(27건), 근무여건(21건), 아이디어미흡(17건) 등 이다. 또한 대위급 보다는 주임원사 급에서 부대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15%이상 높았다.

3) 간부와 사병이 함께 받는 정신교육은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70~80% 라고 답했으며 위관 급에서 10% 가까이 다른 계층보다 낮았다. 또한 별도의 정신교육이 필요 없다고 한 답변에서 형식적이기 때문과 시간부족, 임무시간에 교육시간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간부의 정신교육 효율적 장소와 향후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작성결과 향후 희망교육기관으로 장교, 부사관의 답변이 49%정도 리더십센터 등 보수교육기관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위임교육기관도 27% 정도로 나타났고 부대에서의 교육은 17%정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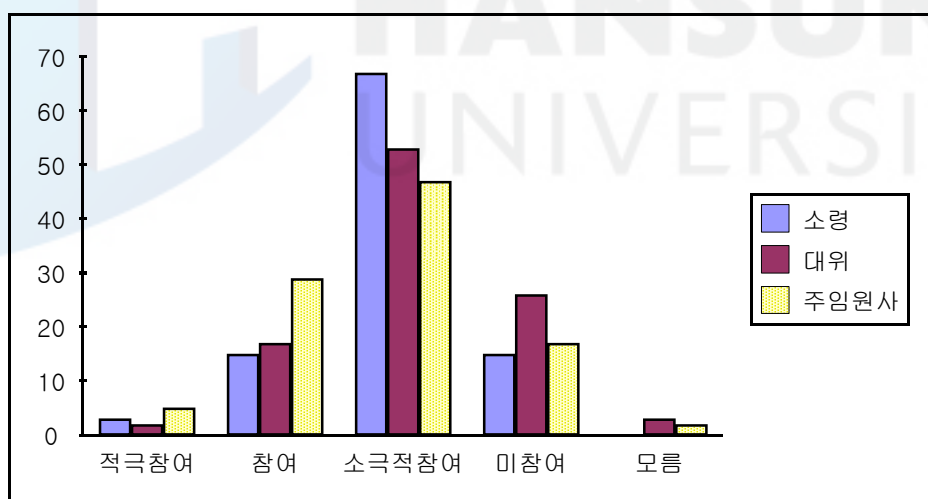


5) 부대정신교육 현 체제와 시간량은 소령과 대위는 보통이 41%, 다소 미흡이 33%이나 오히려 주임원사급은 보통이 55%, 미흡이 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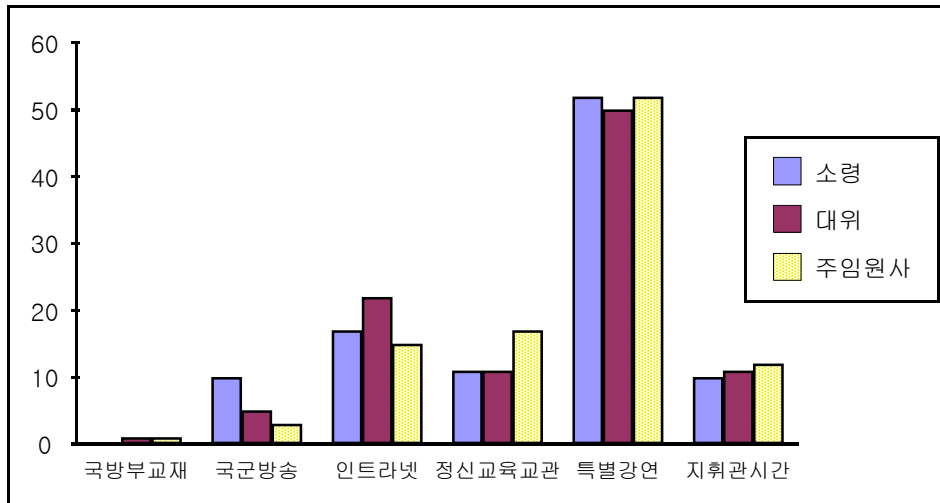
6) 정신교육 시 인성교육 필요성은 필요하다 이상이 대위 79%, 주임원사 98%로 답하였고 현 인성교육 만족도는 영관과 주임원사는 80%이상의 답변이 보통이라고 답하고 불만족이 8~9%인데 반해 대위는 49%가 보통이고 불만족이 18% 정도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관심부족과 형식적인 교육, 교육준비 부족, 시간부족 등이었다.

7) 정신교육평가에 관하여는 각 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2%정도이고 필요 없다는 70~80%이상으로 평가를 원하지 않았으며,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정신교육교관의 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휘관의 평가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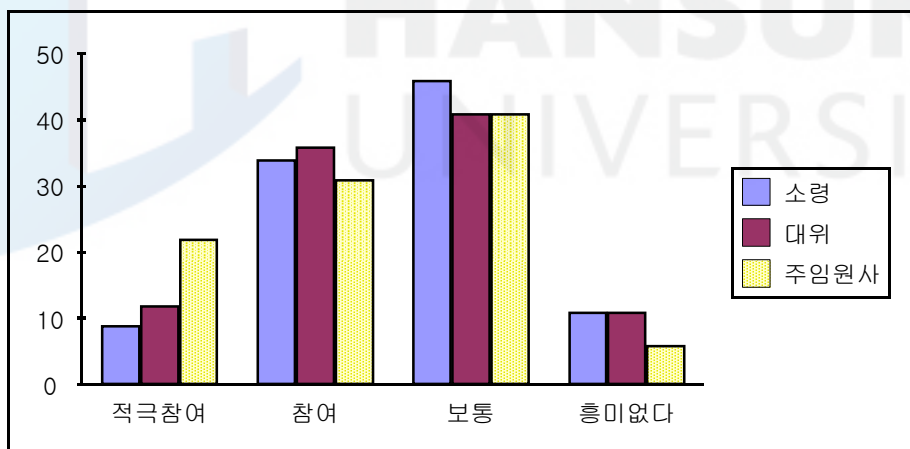
8) 정신교육 시간을 줄이고 사이버 교육(컴퓨터 자율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호응도는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69~81%정도로 나타났다.



9) 정신교육 시 가장 효과적 방법은 특별강연이 50%를 상회하였고, 가장 효율적인 교보재는 인트라넷 43%, 국방부교재 20%, 국방일보 18%로 인트라넷을 가장 선호하였다.



10) 간부의 정훈간부화 교육을 한다면 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47%나 되었고 보통이상 참여하겠다고 답한 자를 포함 시는 89%이며 인센티브 도입에 대하여도 호응도가 60%가 넘었다.



2. 각 계급별 종합의견

1) 소령 의견

소령은 군의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중요참모의 역할이 시작되며 군에서의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계급으로 각 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장교로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급이며 각 단위부대나 대대급에서 핵심이 되는 계급으로서 이들의 정신교육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근무여건과 상황에 따른 시간부족
 -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인트라넷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 프로그램개발
 -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수립이 필요하며 시사성 있는 자료 업데이트, 이론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과 참여 위주교육 실시
 -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1회 통합실시 할 프로그램 개발
- 근무여건 및 상황을 고려 획일적, 강제적이 아닌 융통성 있고 재미있는 교육이 요구됨
- 외부기관과 연계 다양한 교육제공. 리더십센터의 기본교육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됨
- 정신교육수준은 투입시간보다 강사자질과 피교육자 수강자세 중요전형적, 계획적 저명인사의 고견청취 기회 확대
- 실제 군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장교 & 부사관 간) 요구됨
- 생활 속 자연스러운 교육필요
- 정신교육시간을 줄이고 특별교육(강연)을 증가 운영되었으면 함

2) 대위 의견

대위계급은 초급단기장교에서 장기장교로 결정되고 안정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계급으로 작전에서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능숙하게 하게 되며 신세대로서 자부심도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계급으로 설문지 작성에서도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지닌 집단으로 의견제시는 아래와 같다.

- Off-Lline 방식의 일정주기 소집교육
- 인트라넷을 활용 접속 시 강제 읽기 장치필요
 - 팝업창에 정신교육내용을 띄워 자동적 정신교육이 되도록 한다.
- 간부에 대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 교육이 되도록 체계수립시행
- 정신교육이 부담스러우므로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 자극
- 대대 홈페이지 활성화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함
- 애국심, 군인정신, 국가관, 가치관에 대하여 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 질적 문제 주안점 둘 것(효과적인 교육전달방법)

3) 주임원사급 의견

주임원사급은 각부대의 상사나 원사들의 교육과정으로 군 경력이 오래되었고 사병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휘관을 보좌하는 부사관으로서 정신교육이나 군 생활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면이 많은 집단이며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지휘관과 부사관 및 병사의 가교 역할도 하면서 부대의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의견종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교육강화에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줄 것
- 정신교육 교관자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이 요구됨
- 간부들의 정신교육은 정신교육기관에서 2년 주기로 1회씩 교육요구
- 정신교육을 시간과 형식에 의하여 강요하지 말고 필수과정 또는 권장유도
- 신세대 장병 공감 필요에 따른 외부민간인 강사 활용할 것
- 장병관리 차원에서 입대부터 부대생활까지 개인정보공유로 정신교육에 활용
- 교육 시스템 개발과 별도의 과정운영, 프로그램 개발

3. 설문지 분석

전반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면서의 느낌은 시간과 설문지 개념에서 다소 성실성이 부족하였고 설문지 작성 시 답변자체도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신교육강화에 대부분 간부들이 공감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하여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사려된다.

- 1) 간부양성과정에서 정신교육이 군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많은 간부들이 긍정적으로 동조하였음
- 2) 현 부대정신교육 계획과 시간은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간부 정신교육은 별도의 기관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음
- 4) 정훈간부화 양성에서는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정신교육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도 선호함
- 5) 정신교육평가는 대부분이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마치 점수로 환산되고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 6)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전문적 정신교육교관을 원하며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7) 정신교육교관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8) 인트라넷 활용과 외부교육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었음

제 5 장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대적관 교육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로부터 목표와 방향, 내용 등의 검토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앞 장에서 제기한 학교교육과 부대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군 간부 정신교육 활성화

본장에서는 4장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군 간부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군 간부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간부 양성과정에서 정신교육 생활화, 전간부의 정훈간부화, 교육 매체 다양화에 따른 PC 활용과

둘째, 교육 전문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신교육전문교관 양성을 위하여 정훈 분야 확대와 인성교육에 효율적인 특별강사의 증가운영과

셋째, 정신교육평가개선 등으로 연구하였다.

군 정신교육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6.25를 거치면서 군 정신전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진화해 왔다. 다양한 형태와 교육내용들이 시대정신교육의 부침 속에서 첨가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만은 시대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다. 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지만 정신교육의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그 방법과 제도의 수정만이 있어왔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간부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군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의 정신교육 생활화

젊은이들의 안보관과 국가관, 가치관 등을 국가가 가정과 사회와 학교 등 모든 교육시스템을 총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군을 선택하였을 때 군에서는 대적관과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군을 선택한 젊은 간부후보생들이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긴장감 등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고조되어 있는 양성과정에서의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을 강화 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사관학교나 기훈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생도나 학생후보생들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즉 내무생활에서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는 정신교육 생활화이다.

첫째, 기상 10분전부터 취침 까지 교육생들의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화 시키고 구체화 하여야한다.

둘째,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자료나 교보재가 준비 되어져야 한다. 즉 학교 입구로부터 교정, 건물, 내무실, 복도, 식당 등 본인이 정신교육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인한 거부반응이 없도록 배려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진행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교관중심의 강의형 교육진행체계가 아닌 피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조직화한 새로운 교육진행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의 정신 교육 CBT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각 양성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터를 갖고 정신교육 생활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세세한 부분과 과정을 계획하고 종합적인 커리큘럼화가 되어야 하겠다.

본인이 몇몇의 중요 지휘관과 정훈장교를 통하여 인터뷰한 결과 학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실행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명문화 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같은 생활화된 정신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인 정신교육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는 1인 1 종교생활하기, 학교 정문에서부터 교정, 내무생활관, 복도, 식당 및 주변공간을 활용하여 국가의 영웅들의 활약상이나 업적 등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관, 존엄성, 애국심고취, 군인으로서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료전시, 취침전이나 취침 시 또한, 내무생활이나 식사시간 등을 활용하여 영내 방송은 무엇을 들려줄 것이며 국가 홍보자료나 시청각 교육자료 통한 인성교육 군에 필요한 영화 상영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되어지는 종합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족 성역순례, 전적지 방문, 유적지 순례 등 큰 국가적 어려웠던 시기와 자랑스러웠던 시기의 현장위주의 정신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정신교육 생활화를 위한 커리큘럼화하여 개발해야한다.

2. 전 간부의 정훈간부화

정신교육교관은 부대지휘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대지휘관들은 많은 임무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제를 교육할 만한 준비시간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지휘관은 몸으로 솔선수범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정신교육을 현 정훈장교가 맡는 것 역시 전대급 이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격오지 부대인 레이더 사이트나 방포대 또는 타군과견대 등 소단위부대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훈간부를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정훈간부란 장기하사이상 부사관 에서 소령까지 특기에 무관하게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정신교육을 받은 간부는 본인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신교육요구량도 충족하면서 병사나 간부 등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담당할 능력을 구비한 간부를

칭하며 각 부서의 계선상이나 참모부서의 간부 또는 격오지 소부대 혹은 파견부대의 간부로 부서장이나 지휘관이 인정하는 간부로 육군본부에서 인사명령으로 하달한다.

설문지에서도 정훈간부 양성에 적극적 참여로 분석 되었듯이 특기에 무관한 정훈간부를 양성하여 자연스럽게 간부자신의 정신교육도 충족하고 다른 간부나 병사의 정신교육을 수행하기위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별도의 교육기관을 국방부 차원에서 간부정훈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현 교육기관(보수기관 : 공대, 리더십센터)을 보강하여 양성하든지 혹은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우수한 정훈간부를 양성해야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시간 등이 부족하므로 사이버교육으로 일정 기간 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최종 소집교육을 단기간 2~3일 정도 실시하여 정훈간부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육군본부 인사명령하달로 정훈간부를 인정함으로써 정훈간부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소집교육 우선순위는 파견부대나 격오지 간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정신교육에 대하여 개인책임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정훈간부들의 지속적 관리는 보수과정인 육군대학이나 리더십센터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PC 활용방안

현재 군의 교육환경은 자유시간대 TV시청이 자유롭고 대부분 소부대까지 인터넷 PC가 보급되어 자유롭게 외부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교육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군방송이 개국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에 있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인 정훈교실이나 명강특강 등 더욱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덧붙여서 설문지에서 나타났듯이 현재의 정신교육

지침서에 따라 부대정신교육을 실시하되 점차적으로 PC 활용을 넓혀야 한다.

첫째, 현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컴퓨터를 켜는 순간 팝업창을 활용하여 팝업창에 간단한 일일 정신교육을 띄워 가볍게 확인함으로서 일일 정신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도록 하며

둘째, PC로 본인이 자율적 교육을 받고 본인 스스로 컴퓨터 확인란에 체크 하는 방법을 채택, 자율적 수업 평가방법을 유도한다면 특히 방공대나 관제대대의 간부교육으로 부대 정신교육 보완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부대 혹은 대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신교육차원에서 정훈 간부 등이 귀감이 되는 글이나 훌륭한 좋은 글들을 올려 공유하는 방법과

넷째, 교육내용 다양화로 인성교육, 사고사례, 법규, 규정들을 연계시켜서 실시한다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선진화된 강군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생활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 간부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로운 미디어 교육기법의 도입을 통해 간부 정신교육의 질적 향상이 될 것이다.

제 2 절 학교기관 정신교육 발전

대적관 교육을 올바로 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학교 교육을 내실화에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장교와 부사관들 개개인의 대적관을 확립시킴은 물론, 각급 부대에서 정훈교육을 비롯한 대적관 교육 교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기관에서의 대적관 교육이 요망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별 특성에 맞도록 교육 목표와 요망 수준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내실 있게 정립되어야 한다. 대적관 교육 시간 편성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 시기도 과목의 성격을 고려

적절한 시기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방법도 교육생의 성향과 수준 등을 고려,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평가체계 역시 교육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장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야전 각급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지휘관으로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한 관심을 경주함과 동시에 정훈교육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1. 과정별 교육 목표 및 요망 수준의 차등 적용

장교과정의 경우 양성과정, 초군과정, 고군과정이 각각 다른 목표와 중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적관 교육을 위한 교관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단계별로 요망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교 양성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대적관 교육의 이해와 초급교관으로서의 발표력 향상에 교육 목표를 두고, 대적관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론 습득, 교안 작성 및 교수기술 습득과 실습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여야 한다.

초군반 과정에서는 연대급 이하 정훈공보업무 수행 능력과 함께 대적관 교관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정훈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종 교수기법의 체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고군반 과정에서는 사·여단급 이상 정훈공보업무를 위한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및 대적관 전문교관 능력 구비를 목표로 대적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법 실습, 각종 교수안 작성 기법 및 교수 방법의 전수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육군대학에서는 대대장으로 부임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상정하여 대대장급에 합당한 대적관 교육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착안하고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과 아울러 단위 부대 지휘관으로서 수시 특강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교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적관 관련 과목과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구 분	양성과정	초군반	고군반
목 표	대적관 교육의 이해와 발표력 향상	대적관 교관 능력 향상	대적관 전문 교관 능력 구비
요망 수준	대적관 교육에 대한 이론 및 교수기술 습득	정훈교육 이해 및 교수기법 체득	대적관 교육에 대한 교육기법 실습 및 교육 방법 전수

<표 5-1> 과정별 목표 및 요망수준

2. 교육 시간 편성 상향 조정으로 실습 시간 확대

현행 각 병과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초군반은 24시간, 고군반은 32시간을 정훈교육에 할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적관 내용은 약 25%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간으로는 실제 야전 각급 부대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위관 장교들을 대상으로 교관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 목표와 요망 수준이 타당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에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여 교육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각 군에 기준 시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3.5% 비율을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보병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초군반(학사/학군)은 총600시간 중 30시간으로, 고군반은 42~3시간으로 정훈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6~10시간을 교관화 실습시간으로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문제를 다소 해소함으로써 중·소대장급 장교의 교관 임무 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대적관 교육 주기 조정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기관에서는 대적관 교육 과목에 대해서 입교 초기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기관에서 배출된 간부들이 대부분 실무부대에

배치되는 즉시, 대적관 교육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적관 교육의 주기를 선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적관 교육의 주기를 선정할 때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 내용의 망각을 최소화하면서 내용 숙지 및 적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률 변화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과시간	망각율	경과시간	망각률
20분	42%	48시간	72%
1시간	56%	6일	76%
24시간	66%	31일	79%

〈표5-2〉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률

* 자료 : 국방대학교, 정신전력론집, 2009.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 후 1시간이 지나면 학습 내용의 56%를 망각하게 되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는 66%, 한 달 가량 지나면 79%까지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지속 효과를 유지하면서 야전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료 직전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등 망각 주기를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4. 핵심과제 위주 선별 교육

현재 4개 과목형으로 된 교재를 유사 중복된 내용을 감안하여 더욱 축소된 과목형으로 재정리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군반 과정의 경우 이미 양성과정과 초군과정 교육을 통해 기본정훈 18개 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군 생활을 통한 경험적 요소, 최근 안보상황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18개 과제 중 유사과제를 통합 후 한국 근현대사, '북한 실체', '통일정책', '한국안보' 4개 과목을 '한국 근현대사', '북한 실체', '한국안보현실' 3개 과목으로 축소하여 핵심 과제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구분	한국 근현대사	북한실체	통일정책	한국안보
내 용	- 시대사 개관 - 구한말 시대상황과 국권침탈 -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시민	- 주체사상의 이론적 배경 이해 - 북한 공산장권 수립 - 주체사상, 선군정치 - 북한실상과 주민생활 - 대남전략전술 - 대남 도발과 우리의 자세	- 남북한 통일방안 -북한 통일방안 -우리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 올바른 통일 문제 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비용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	- 안보 위협 -북한의 위협 -국내위협 -주변국 위협 - 우리의 대응 -정예화된 선진강군 -한미 동맹발전 -확고한 안보 의식 고취



구분	한국근현대사	북한실체	한국안보현실
내 용	근현대사 쟁점 이해	북한정권수립과 주체사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 우월성	북한실상과 주민생활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통일조국 미래상
		대남전략전술과 대남 도발사례	

<표 5-3> 과목 세부 편성 안

5. 교육 진행 방법 발전

1) 종합토의식 교육 방법

대적관 교육은 일종의 신념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방적 주입식 강의 보다는 기초적인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초 강의를 실시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토의, 질의, 응답을 통한 자기 신념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토의 및 강의에 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강의, 개인 연구, 토의 및 발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토의 준비를 위한 개인 연구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고 이를 위한 자료도 사전에 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차선택으로는 주요 사안별 교관에 의해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교육 마지막 3시간 이상 종합토의를 편성하여 교육받은 사항에 관하여 전문교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진행은 100명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종합토의를 진행할 경우, 종합정리라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20-25명 규모로 분임을 편

성하여 분임별 지도교관 1명이 지도하여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점은 지도교관이 전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의사안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목과 관련된 주요 토의주제를 선정(10-15개 정도)하고, 선정된 주제에 관해 전문교관이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정리 겸 강평 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 및 야전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초군반은 그 시기를 지휘실습 후 적용하고, 고군반은 수료 전 부임 예정부대 및 직책 확정 후 적용한다. 정과시간에 반영시 예비시간 활용, 일과 후 야간교육 적용시 1일 2H 이내 반영(익일 교육여건 보장) 교육방법은 개인별 부족 분야 교육으로 자유 선택/질의 응답식 교육으로 진행한다.

또한 야전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로, 대적관 교육 교관화 실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야전부대 대적관 교육 전문교관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법 강화 및 구술평가를 실시하여 교관 합격제를 적용하며, 임무형 지휘과제 실습 교육 강화로 창의력 계발 및 논리적 발표 능력을 향상한다.

둘째, 육군대학 영관반 과정은 고군반 대비 교육 내용 차별화하여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되 안보전문강사 초빙 및 현장 견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원 수탁 교육과 국가정보원 안보 전시관 견학 등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행정학교의 정훈장교 영관반에 대해서는 대적관 교육 관련 전문 과정으로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 형태의 다양한 교육 방법 적용도 필요하다.

3) 학생의 수업 참여폭 확대

학교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 장교 및 부사관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그런 만큼 수업에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

다. 따라서 교관은 교육생들을 어떻게 교육에 직접 참여시킬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그 결과를 수업 진행 방식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첫째, 문답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문답법은 현재도 교관들이 가장 쉽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관 중심의 교수법인 강의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생들을 수업 진행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교육생에 대한 질문은 흥미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적절히 긴장감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할 때에는 교육생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어려운 질문보다는 쉬운 질문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하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내용이 나오면 교육생에 대한 칭찬과 함께 교육 목표에 부합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등의 교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핵심 내용을 읽게 하는 방법이다. 소리 내어 읽히는 음독, 돌려 읽히는 윤독, 특정 부분을 찾아 읽히는 발췌독, 모든 교육생들이 함께 읽도록 하는 합독 등을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소리 내어 글을 읽도록 하는 방법이 중시되었다. 윤독은 많은 분량의 내용을 읽는 데 적합하며, 발췌독은 주요한 부분의 참고 자료 등을 찾아 읽힘으로써 교육의 집중을 유발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3분 5분 10분 스피치를 적용한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고, 둘 또는 셋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숙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거나, 임의로 특정 교육생을 지정하여 전 교육생 앞에서 스피치하도록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사안에 대한 자기 의견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 3 절 부대 정신교육 발전

야전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적관 교육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야전부대에 적합한 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과 진행 모델, 교육 주체인 지휘관의 역할 정립과 교관 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자인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법 개선과 교육 여건 조성 등의 통합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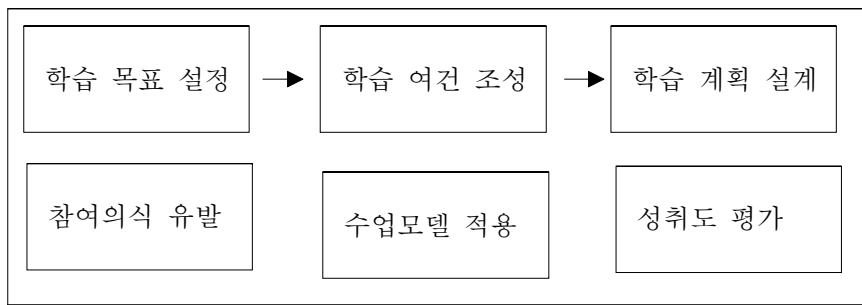
1. 야전부대에 적합한 기본방향 및 진행 모델 설정

군 구성원들은 성장 배경, 입대 동기, 가치관, 교육수준, 종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국방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군 구성원들을 국방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장병들로 하여금 군의 지향 목표 및 군 복무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토록 하며, 병영생활 속에서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대적관 교육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의 대적관 교육은 여타 정훈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치인식 단계 ▶ 신념화 단계 ▶ 행동화 단계를 거치도록 기획 단계부터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즉 장병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가치를 인식토록 한 후 이를 신념화시키고 가치와 규범들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정신전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적관 교육에 접합한 교육 진행 모델을 모색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에서 실시하는 대적관 교육은 교육 내용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진행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표 5-4> 대적관 교육의 진행모델



* 자료 : 국방대학교. 정신전력론집. 2010. P.110.

첫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요구를 충족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즉, 장병들의 수준이나 성향, 학습요구 등을 분석한 후 이에 일치하는 학습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인 장병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습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학습계획이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대상인 장병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동기유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 수준과 성향에 부합되도록 학습활동에 적절한 수업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학습활동 진행 간에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입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짜임새 있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입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
• 학습목표 제시 • 선행학습 내용 소개 • 동기유발 대책 강구	• 학습내용 제시 • 학습방법 소개 • 다양한 교육모델 적용	• 핵심내용 요약 • 질의응답 / 결론 • 차후학습 예고

< 표5-5 > 학습활동 진행단계

* 자료 : 국방대학교. 정신전력론집. 2009.

아울러, 수업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강의식, 문답식, 토의식, 단기 집중식, 세미나식 모델 등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정하거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교육모델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은 강의식, 토의식, 단기 집중식 모델 등 세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간부는 교관이고 병사는 교육생’이라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야전부대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섯째, 학습이 종료되면 교육생의 반응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교육의 성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환류될 때 교육의 성과는 그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2. 지휘관 중심 대적관 교육 체제 발전

1) 지휘관 중심 대적관 교육의 개념

전투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대적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전투지휘를 지휘관이 진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승의 기초가 되는 대적관 교육 역시 지휘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대업무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지휘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어떤 분야는 좀 더 발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많은 지휘관들의 지휘방침에 ‘정신전력 강화’라는 용어가 포함된 시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용어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정훈장교의 수적 감소와 정훈교육 담당자의 인적구조 하향 편성으로 인해 그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휘관 중심의 교육과 VTR 교재의 지원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휘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제대별로 요구되는 덕목들이 제대별 지휘관이 총괄해야 하기 때문인데 지휘통솔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역 할	모범자·개발자·통합자
자 질	지혜·신념·통찰력·결단력·용기·진취성·인내력·치밀성
윤리적 행동 규범	전쟁보다 평화 애호·무력 사용 절제·정당한 명령에 복종·비윤리적 명령 금지
개인적 생활 윤리	신의·성실·정직·품위 유지·준법·청렴/검소
직업 윤리	충성·명예·책임·희생·복종·공정
윤리적 책임	윤리적 모범자·윤리 의식 개발자·윤리적 분위기 조정자
부하로서의 자세	자발적 복종심·본능적인 경청/행동 자세·자기보상·조직 속의 자신을 자각·자신의 업무에 정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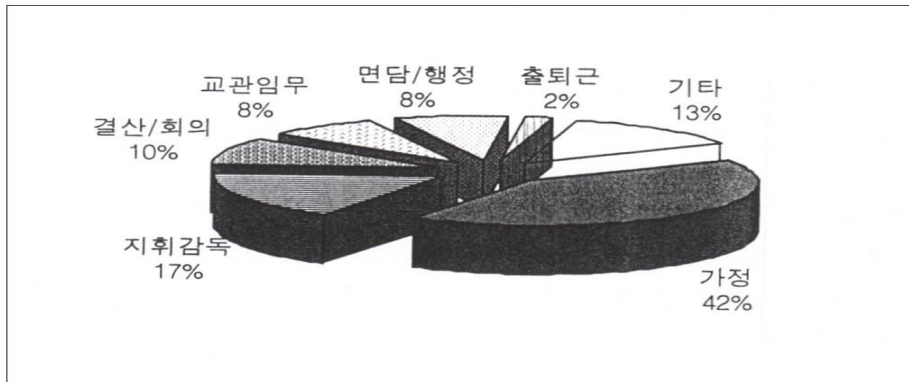
<표5-6> 지휘 통솔자에 대한 공통적 요구 사항

* 자료 : 박균열, 국가안보와 가치교육, 2004, p101.

지휘관 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모든 교육을 지휘관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의 담당 참모(정훈장교) 중심의 교육에서 지휘관이 핵심이 되어 총괄적인 지휘 하에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지휘관은 중대장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부대관리의 책임과 일반적인 교육 훈련의 책임도 동시에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하루 일과는 사실상 매우 빠듯한 실정이다. 대적관 교육은 대부분 중대장과 대대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듯 바쁜 지휘관들이 대적관 교육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줄곧 ‘지휘관의 교육준비 부담 감소’가 커다란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군 TV 방송이 설립되어 ‘정훈 교실’과 ‘명장 특강’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국방일보에 ‘기본정훈교육’과 ‘시사안보교육’ 자료가 매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표5-7> 야전지휘관(중대장)의 하루 일과



* 자료 : 최광현 외, 「정신전력 육성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0.5, p62.

지휘관의 바쁜 일과를 충분히 알면서도 지휘관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신교육은 지휘관의 기본 임무라는 것과 아울러 대적관 교육은 물론 여타의 정신교육은 타 분야와는 달리, 지휘관의 관심이 저조할 경우 교육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대적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참모
교육 전	• 대적관 관련 주요 보도사항 검토 • 교육 자료 확보 및 교관 준비 여부 확인 • 당일 일정 및 업무 조정 • 국방일보 사전 윤독 여건보장	정훈, 교육 정훈, 교육 인사, 작전 인 사
교육 중	• 교육 진행 확인 및 감독 • 필요시 직접 교육 • 교육환경 점검(장비, 소음 등)	공 통
교육 후	• 교육 성과분석, 문제점 파악 • 열외자에 대한 기회교육계획 확인	정훈, 교육 정훈, 교육

<표5-8> 대적관 교육시 지휘관 관심사항

위의 표에서와 같이 대적관 교육을 위한 지휘관의 관심사항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대적관의 경우 먼저 교육실시 전에 해야

할 일은 대적관 교육과 관련한 보도사항을 확인하는 일이다. 해상과 전방 지역의 군사 충돌 여부, 탈북자 및 밀입국자, 북한과의 교류 협력 진행사항, 북한 정권 동향과 주민 생활상 등은 대적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서 사례교육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정훈장교나 교육장교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급부대에서 지원하는 교육 자료나 국방일보 교육자료 등을 살펴보고 국방 인트라넷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군TV ‘정훈 교실’과 ‘명강 특강’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교육 당일은 부대의 전 역량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보고, 결재, 간부 출타, 분야별 업무협조 등을 확인 조정하고, 교관의 교육 준비 상태 점검과 병사들이 휴일이나 하루 전 자율 활동 시간(17:00~21:00)을 이용하여 국방일보의 교육 자료를 윤독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육실시 중에는 계획대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TV나 VCR 등 장비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차량이나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 준비하여 대대장이 직접 교육하면 교육효과를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도부터 육군본부 지침에 의해 추진하였던 ‘지휘관 특강식 순회교육’⁶¹⁾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지휘관 특강식 순회교육 참고자료 : 부록6 참조)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결산 시나 관계 참모의 보고를 통하여 교육 실시간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대한 지휘 조치를 강구하고 교육 열외자에 대한 보충 교육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상적인 교육으로 간주하여 관계 참모나 중대장들에게 내맡긴 채 대대장은 상급부대를 방문한다거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보고를 받거나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나 시범, 검열 준비 등을 한다면 교육 효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61) 육군본부(2007), 『지휘관 특강식 순회교육 계획 보고』.

이 계획은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부대역사와 전통,임무와 연계하여 대대장은 중대별로 분기 1회, 연대장은 대대별로 분기 1회, 사(여)단장은 수시 기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제대별 지휘관 역할 정립

이와 같은 지휘관 중심의 대적관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휘관별 대적관 교육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각급 지휘관 별 명시된 과업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부터 각급 부대의 규정이나 운영 내규 등에 반영하고, 그 시행 정도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적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각급 지휘관별 주요 역할과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단장(독립 여단장 포함)

사단장은 야전 부대에서 정신교육을 지휘 감독하는 마지막 지휘관인 동시에 정신교육의 상징적 존재이며, 또한 부대정신의 표상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사단 정신교육 지침을 하달하고, 시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한다. 또한 사단장은 대대별 반기 집중정신교육 계획을 보고 받고 제대로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특히 대대장이나 중·소대장의 교관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집체교육을 하거나 교관경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병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매 기수마다 1시간 정도씩 군 생활 경험 요소와 함께 대적관 교육을 한다면 전 부대원을 대적 필승의 전투요원으로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 연대장

연대장은 주로 각 대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교육 시행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소요를 찾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연대 직할 부대의 정신교육계획을 확인하고 시행상태를 확인 감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연대장은 병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연대 간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대장의 교관 능력 향상에 책임을 지고 전 입장교에 대한 교육과 간부 집체교육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대적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 1회 기준 대대 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대적관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중·소대장들이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대대장

대대급 부대는 분야별 참모가 편성된 최소 단위의 부대이며, 대부분의 부대가 지역적으로도 대대급 단위로 주둔하고 있어 정신교육은 물론 대부분의 부대활동이 대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대장은 현행 정신교육 시행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대장은 대대의 정신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때로는 직접 교관으로서 대적관 교육을 준비하여 중대 단위 순회교육을 하거나 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대장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서 다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대대장은 각 중대의 일일정신교육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정신교육이나 반기 집중정신교육 계획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시행하되, 교육 열외 인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대 활동 전반을 대적관 교육 중심으로 조정하고, 불가피한 열외 인원에 대한 보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중대장 및 소대장

중대장과 소대장은 정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대장은 지휘관 중에서 직접적으로 병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관과 안보관/대적관, 군인정신 면에서 역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대적관 교육은 타 분야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다가 예민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상급부대의 교육 지침을 잘 따라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따라야 할 것이며, 소대장은 경험도 부족하고 병사들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임을 감안하여 교관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소대 단위 국군TV 방송 시청과 토의 등 진행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교관이 교육 준비 및 실시 과정에서 활용하는 교육 자료도 인터넷 등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대장은 중대의 일일-주간-반기 정훈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맡은 지휘관으로서 교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교육 시간마다 국군TV 시청 준비, 교육 자료 윤독 및 토의 준비 상태, 기타 교육 보조재료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간에는 소대장들로 하여금 국군TV 시청과 토의 진행을 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론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대 단위에서 병사들의 교육 동기 유발과 흥미 유지를 위한 퀴즈 게임, 삼행시 짓기, 단막극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휘관	주요 역할
사단장 (독립 여단장)	야전부대의 정신교육을 현장 지휘하는 최종 지휘관 부대정신의 상징적 존재 상급부대 지침에 의거한 대적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반기 대대단위 집중정신교육 계획 보고 청취 및 시행 지도 감독 교관 능력 향상 위한 집체 교육 및 교관경연대회 개최 매 기수별 신병 정신교육(1시간)
연대장	연대 직할 부대 정신교육 계획 수립 시행, 지도 감독 대대단위 대적관 순회교육 전입장교 교육 등 중소대장 교관 능력 배양
대대장	대대 단위 정신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책임자 중대 단위 교육 준비 및 시행 상태 확인 감독 중대 단위 또는 대대 전체 대적관 교육 중소대장 교관 임무수행실태 확인 및 교관 능력 배양
중대장 및 소대장	정신교육의 첨단 책임자로서 중추적, 핵심적 역할 제반 정훈교육을 위한 준비 및 시행 책임자 교관 임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효과적인 교육 목표 달 성을 위한 교육 방법 개발 및 적용

<표5-9> 대적관 교육을 위한 각급 지휘관 역할

3) 지휘관의 교관 능력 향상

대적관을 포함한 군 정훈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데는 교육 주체인 지휘관과 교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군의 정훈교육이나 정신교육에서 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로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정훈장교이다. 사단장과 연대장 등 고위 지휘관도 때로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직접 교육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대장은 경험도 부족하고 병사들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있으므로 권위 있는 대적관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 학습자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대대장과 중대장, 정훈장교가 맡고 있고 있는 것이다.

학교 대적관 교육 발전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되었듯이, 각급 학교 기관에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훈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신념화는 물론이요, 야전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기관에서 대적관 교육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교관 능력을 갖추서 야전부대에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야전의 각급 부대에서 자대 실정에 맞도록 교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야전부대에서 교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특히 사(여)단 단위에서 지휘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사(여)단급에서는 연 1회 전 간부에 대한 집체 교육 등을 통하여 대적 필승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계획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대적관 확립을 위한 교관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과 시간을 부대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전입장교나 초임장교에 대한 전입교육 시에는 특히 일일-주간-반기 정훈교육 진행 요령이나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실습식 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부대에 전입하면 기본정훈 담당과제를 부여한 뒤에 2개월 이내에 연습강의를 실시하여 합격자에게는 교관 인증 자격증을 수여하고 교관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여단급 이상 제대에서는 반기 1회 지휘관 분야와 정훈장교 분야를 구분한 교관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한 지휘관의 포상을 수여하도록 하되, ‘상장’보다는 동기 부여도 되고 근무 실적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부대별 정신전력 분야 우수부대 선발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교관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계획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구 분	군사령부	군단	사(여)단
대 상	연대장, 대대장, 전 정훈장교	대대장, 연대급 정훈장교	중대장, 대대급 정훈장교

<표5-10> 제대별 교관경연대회 대상(반기 1회)

3. 학습자 참여형 교육 기법 및 모델 적용

최근 들어 강조되거나 일부 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참여형 교육은 ‘바로우의 문제 중심 학습이론’과 ‘존 듀이의 경험주의 학습이론’, ‘스키너의 강화이론’에 기초한 것이다.⁶²⁾ 바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 및 토론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교관은 상황 조성 및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 수행에 국한시키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존 듀이의 경험주의 학습이론은 일체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 당사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적 상황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험과 사고의 교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기초해서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 보다는 학습자인 병사들의 입대전 경험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이론은 어느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서 강화함으로써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도록 한다는 ‘조작적 조건화’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에는 긍정적 보상을 통해 병사들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학습자인 병사들이 대적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기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동기유발을 위한 보상 확대 및 페널티 부여하기

대적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피교육자인 병사들이 학습자로서의 자세에 있어 동기유발요인이 부족하다보니 피동적,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교육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군 복무는 병사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군 생활 전반에 대해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신세대는 자기중심적

62) 참여형 정신교육의 야전부대 적용 실태에 대해서는 나승용(2011),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기법 적용 사례와 성과, 참여형 정신교육 기법을 중심으로”, 『제2회 국방정신력세미나집』, 서울: 국방대학교. 를 참조할 것.

이어서 공식조직보다 비공식조직에 친화력이 강해 자기가 속한 동아리나 친구에 몰두하고 사회통념이나 인습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려 하며, 합리주의적이어서 수직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탈권위주의적이어서 기성세대의 권위에 맞서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⁶³⁾

이에 국방부에서도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문화 비전」의 개선과제로서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동기유발 방법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상과 처벌이다.⁶⁵⁾ 일반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주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 보다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상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고 칭찬과 같은 언어적인 방법도 매우 유효하다.

처벌은 리더(지휘관, 교관)에게 가장 생각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가 적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 촉진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보상의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하관리에 있어서 한 마디의 칭찬과 같은 보상보다는 질책성 처벌의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가 있다.

병사들은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직장에서와 같이 승진을 위한 평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군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병사들이 통제에 따르고 허용하는 범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벌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63) 전호환(2006), 『수용자 중심의 군 정신교육방안』,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p.12.

64) 국방부(2006), 『선진 병영문화 비전』, 서울: 국방부, p.6.

65) 신웅섭(2005),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p.471.

군 생활에서 다른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대적관 교육의 경우 잘한다고 해서 커다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적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하여 강력한 제재와 같은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병사들은 시키는 대로 생활관에 앉아 TV를 보고 교육 자료를 윤독하고 교관의 질문에 답하고 몇 사람만 발표하는 등 수동적인 형태의 학습태도를 갖기가 쉬운 것이다.

종전에는 각 부대별로 병사들에게 ‘상·벌점제도’를 적용한 적도 있으나 대적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커다란 보상과 처벌 내용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물론 부대시험 등을 앞두고 대적관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평가 결과가 수준에 미달했을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대적관 교육 우수자에게 상품수여나 외출 외박, 면회의 추가 허용 등 지휘권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포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관이 동기유발을 위한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인식하고 대적관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교육태도가 올바르고 진지하게 토의와 발표에 임하는 병사에게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교육태도가 불량한 병사에게는 재방영되는 국군TV방송 ‘정훈 교실’을 재시청하도록 하거나 국방일보 교육 자료를 읽고 소감문을 작성하여 다음 교육시간에 발표토록 하는 등 관심을 좀 더 기울인다면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기 쉬운 대적관 교육에 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적관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은 열외자의 발생이다. 특히 고정 열외자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분위기 조성은 물론,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정 열외자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페널티 부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적관 교육을 비롯한 제반 정신교육에 전 부대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출결사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정신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제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정훈장교는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교관에 제공하고, 교관은 이를 시행하고 페널티 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페널티의 수준은 부대 사기와 화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하되,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정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0회 정신교육 불참시 외박 통제 0회, 0회 이상 불참시 휴가 1일 삭감, 업무 빙자 교육 열외 0회 이상 진급 누락 등 개인 신상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이어야 효과가 크다.

2) 쌍방향 발표토의식 대적관 교육 모델

대적관 교육도 과거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 교육기법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제시된 지식을 똑같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통적 교육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경험과 조건에 비추어 이해하고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교육환경에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표토의식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토의식 학습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적관 교육 현장에서 토의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대적관 교육에서 실시한 토의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학습자에게 어떻게 토의를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전략 등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의를 하기는 하였으며,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교육을 해 온 것이다.

토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관은 물론 장병들 역시 피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내재한다. 대적관 교육 현장에서 토의학습은 준비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점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군 대적관 교육이 지니고 있는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토의식 학습을 하면 자칫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교육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를 기피해온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08년도에 제2작전사에서 예하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1년 간 ‘쌍방향 발표토의식 대적관 교육 모델’을 적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였던 경험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 말하는 ‘쌍방향 발표토의식 모델’이란 기존의 토의식 교육 기법의 형태를 발전시킨 것으로 교관 및 전문가, 피교육생인 병사 등 교육 주체들이 사전에 부여된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발표 토의 하도록 하고, 강평, 소감문 작성의 절차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듣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을 넓히는 등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작전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뒤에 나타나는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 병사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쌍방향 발표토의식 교육모델’이 기존의 교육기법과 달리 교육성과도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⁶⁶⁾

장병들의 반응을 보면 기존에 적용해 오던 국군TV 시청과 국방일보 윤독 등 일방향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흥미가 유발되었으며, 대적관 교육의 선입견이나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스로 학습 및 발표하고 타인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과 비교하여 공감하게 되므로 쉽게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잘못된 안보관, 대적관에 대한

66) 이영진(2009), “정신전력 형성요소를 통한 쌍방향 군 정신교육 방안”, 『정신전력연구 제40호』, 서울: 국방대학교.

시각이 교정됨은 물론, 팀워크에 의한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특히, 대적관 교육 교관(정훈장교)의 철저한 교육 준비와 보충 및 부연 설명, 강평 등으로 신뢰감이 증대되었으며, 쌍방향 교육을 통해 발표 및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참관만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쌍방향 발표토의식 교육 모델’은 대적관 교육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법으로서 각급 부대별로 여건에 맞게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좌담회식 순회 안보교육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전투형 강군 육성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하에 전방 00사단에서 ‘좌담회식 순회 안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⁶⁷⁾ 민간 안보 전문가 1명, 탈북군인 1-2명, 군 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다음 <표 5-11>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였는데, 제대별로 지휘관 및 참모, 병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지휘관층

대적관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실감하는 시간이었으며, 민간인 전문 교수에 의한 국제 정치 및 북한의 실상 교육은 정신교육 참고 내용으로 흡족하였다.

- 정훈참모

일방적 교수법에서 소통의 교수-학습으로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을 맞춤형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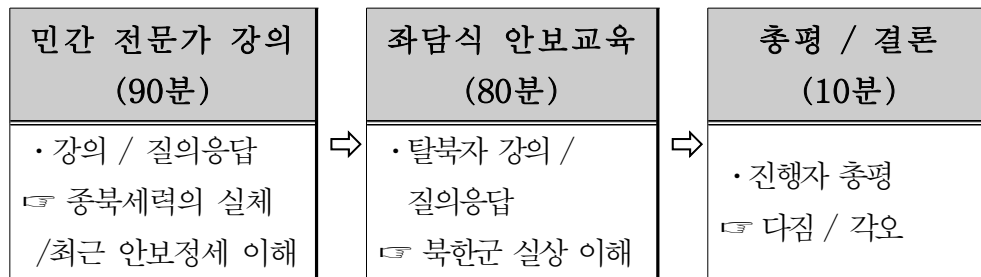
- 장교 / 부사관

사회자의 능숙한 진행으로 교육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고 마치 TV토론회를 보는 듯 교육의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000 박사의 강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북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북한의 본질적인 의도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병사

67) 종합행정학교(2011), 『전방사단 좌담회식 순회안보교육 지원결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 복무한다는 사실에 자긍심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군인의 증언으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긴장된 마음자세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평상 시 아GP에 대한 철저한 관측활동과 이를 통한 탈북경로 선정 등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 경각심이 생긴다.



<표 5-11> 전방사단 좌담회식 순회안보교육 진행 방식

이와 같은 각 신분층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좌담회식 순회안보교육’은 창의적 교육방법으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탈북 군인의 생생한 현장감, 북한 전문교수의 능숙한 진행 등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 추진됨으로써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는 한편, 교육 때마다 지휘관이 참석하는 등 높은 지휘관심으로 인하여 교육 참가 장병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교육성고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의적 교육 방법의 모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의 지원과 함께 각급 지휘관이 대적관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주제발표식 교육 확대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교육을 훈련이나 정신도야 차원에서 보았으며, 모든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습을 주체적으로 이끌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학습자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환기시켰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교수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기반의 사회인 21세기가 도래하면서 교수방법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이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⁶⁸⁾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훈교육에서도 일찍부터 주제 발표식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도 정훈교육 각 과목마다 주제 발표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표 및 토의는 형식화 되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원인은 군 교육의 특성상 분명한 목표를 장병들에게 단기간에 제시하여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방식을 답습하고 있는데다가 병사들도 학습 동기나 열의가 떨어짐으로써 장병 스스로 탐구한다거나 흥미와 관심을 갖지 못하여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고 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8) 박숙희(2002),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p.17.

	교사중심 교수	학습자중심 교수
구 조	• 교육의 결정권한이 교육기관이나 교사에 의해서 결정	•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 • 탐구식·발견식 중심의 수업
수업방식	• 강의식·교과서 중심의 수업 • 획일적인 지도 •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 수동적인 수업참여 • 교사의 수업능력, 지도성에 의존	•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중심지도 • 사고력·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수업 • 능동적인 수업참여 • 다양한 학습자료에 의존
수업평가	• 규준지향평가	• 목표지향평가
장 점	•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침 • 학교교육의 전형적인 수업방식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익숙한 방법 • 시간, 경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제적인 교수법	• 흥미있는 수업 • 창의력 향상 •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충족 •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
교사의 역할	• 유일한 정보의 제공자	• 수업의 안내자 • 학습 촉진자

<표5-12> 교사 중심 교수와 학습자 중심 교수의 비교

* 자료 : 박숙희 외.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2002. p2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능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으며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어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좋은 자료에 의존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대적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요일에 실시하는 주간정신교육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고 병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군 TV 방송의 시간 진행을 변경해야 한다.

구 분	현 행	개 선
1교시 (08:00 ~ 08:50)	• 과업준비 • 항재전장의식 함양활동	동 일
2교시 (09:00 ~ 09:50)	• 기본정훈교육 (정훈교실 시청)	• 기본정훈교육 (정훈교실 시청, 발표)
3교시 (10:00 ~ 10:50)	• 시사안보 / 역사교육 (국방일보 윤독 / 토의)	• 시사안보교육 / 역사교육 (국방일보 윤독 / 발표)

<표5-13> 주간 정신교육 시간 개선(안)

표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 방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발표시간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TV 명강 특강은 과목내용과 연계성이 없고 교양강좌 성격이 있어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정신교육의 날 교육에 포함하지 말고 자율 활동 시간이나 주말 오전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에 3교시까지 포함하여 최소한 30분 이상의 개인발표 시간을 확보하여 모든 병사가 해당 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읽어보고, TV를 시청하고, 생각하고, 작성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탐구정신 배양과 주제를 신념화 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현행 ‘정훈교실’ 시간은 10분 내외로 줄여서 핵심 내용만 제시하여 시청토록 한 후에 교육 자료를 사전에 윤독한 것을 토대로 발표 및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이 되지만 국방일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대, 소대 단위까지 배부되는 교육 자료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포함하면 될 것이고, 교육 자료 윤독과 발표 내용 준비는 자율 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개인발표 시간은 제한된 시간과 인원수를 고려하여 1-2분 정도만 되어도 현재와 같이 교육자료 윤독과 TV 시청, 형식적인 토의 방식의 교육 진행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토의’라는 방식은 교육성격이나 병사들에게 있어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전문지식과 많은 준비가 소요되는 학술세미나도 아닌 부대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제 발표’가 더 적합한 용어이고 이러한 교육방식은 이미 종전에 2시간씩이나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주제발표 성격의 교육방식인 ‘브레인 라이팅(BW)’ 기법과 ‘Talking’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접목하여 대적관 교육에 활용한 부대에서는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해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첫째,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에 집중도와 이해력이 향상되고 둘째, 모두가 참여해 개별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셋째,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넷째, 메모습관 형성 등으로 분석되었다.⁶⁹⁾

이와 같은 주제발표식 교육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의 ‘토의 주제’라는 용어도 ‘발표 주제’로 바뀌고 2개 정도로 제시된 주제도 더 여러 개로 세분화하여 발표자의 발표만 들어도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제00과)에 대한 토의 주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69) 국방일보, 2007. 3. 28, “정신교육 방법 혁신이 필요하다”.

구 분	현 행	개 선
내 용	토 의 주 제 • 북한의 기도와 능력에 대해 발표해 보자 • 북한군의 위협을 예방하고 평화를 보장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발 표 주 제 • 사전적인 의미의 적은? • 휴전선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대는? • 운동경기에서의 적은? • 국군의 적은 누구인가? •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나의 할 일은?

<표5-14> 토의 주제 개선(안)

개선안의 발표주제를 보면 단답형 문제일 것 같아 오히려 1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정도이다.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일보 자료만 봐도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가능하면 최대 인원이 발표토록 하여 병사들은 발표에 대비하기 위해 전원이 사전에 준비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이벤트성 교육’의 활성화

대적관 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있어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성적과 졸업, 진로선택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재미는 없더라도 자발성이 들어설 여지는 있다.

병사들에게 있어 대적관 교육이 재미도 없고 군 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부대별로 반기집중 정신교육이나 과외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일보 및 강원 도민일보에 게재된 아래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교육방식이 병사들에게 흥미도 유발시키고 교육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군 35사단 ‘도전! 골든벨 경연대회’ - 국방일보 2010. 10

- 육군35사단이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적관을 신념화하기 위한 ‘도전! 골든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사단 충경관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예하 연대·직할부대에서 예선을 통과한 80여명의 장병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골든벨 문제는 국방일보 정신교육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안보현실을 반영한 시사안보를 비롯, 군인정신과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에서 40문제가 출제됐다. 또 사단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수 포함해 장병들의 애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사단은 특히 대회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패자부활전과 장기자랑 대회가 그것.

골든벨 대회는 오답을 적은 경우 곧바로 떨어지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초반 탈락자들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드물다. 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자부활전 제도를 도입, 줄넘기를 통과한 장병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영예의 골든벨을 올린 본부대 주정범 상병도 이 제도의 덕을 톡톡히 봤다.

골든벨 권좌에 오른 주 상병은 “평소 정신교육 교재를 꼼꼼히 읽고 전우들과 의견을 나눈 게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같이 재미있게 공부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단은 대적관 골든벨 경연대회와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장병들에게 사단장 상장과 포상휴가증을 수여했다.

11사단, 천안함 관련 주제 발표 경연대회 개최

- 강원 도민일보 2010. 8. 20 -

육군 제 11기계화보병사단은 지난 10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확고한 대적관확립을 위한 주제발표 경연대회를 가져 장병 정신 전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천안함 46용사 및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번 주제발표 경연대회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0일 진행된 경연대회는 그 동안 중대·대대, 여단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12명의 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수동적이고 타율적이었던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장병 스스로 깨닫고 신념화한 내용을 200여명의 전우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표했다.

경연대회에 참석한 장병 중에는 천안함 46용사인 고 차균석 중사 유가족도 있어 장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유가족 이종현 이병은 발표를 통해 ‘어릴 때부터 많이 의지했던 고종사촌형이 실종돼 싸늘한 시체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가슴 졸이던 순간들을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경연대회를 듣던 전우들도 숙연한 자세로 경청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범준 병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앞으로 더욱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 오늘밤 당장 적과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항재전장의식을 신념화 행동화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부대에서는 대적관 도전 골든벨이나 대적관 왕 선발, 대적관 발표 경연대회 외에도 6.25 참전인사 초청강연회, 대적관 정립 3행시 짓기와 글짓기 대회, 전투영화 상영, 6.25 관련 노래 배우기, 3분 스피치 대회, 안보현장 견학 등 병사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반기 집중정신 교육시 등을 이용하여 참여식 현장체험 위주의 대적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모델이다.

구 분	1안	2안	3안
프 로 그 램	◦ 강의(1H)	◦ 강의(2H)	◦ 강의(1H)
	연(대)대장에 의한 특강식 교육 필히 실시		
	◦ 전사적지 견학(4H) - 견학 / 설명(1H) * 정훈장교 / 인솔자 - 전승 결의대회(1H) - 퀴즈 경연(1H) - 이동(1H)	◦ 3분 스피치(4H) - 발표준비 / 작성(30') - 소그룹(분대) 예선(1H) - 제대단위(소대 중대)예선(1H~1H30') - 대대 결선(1H)	◦ GOP 경계 체험(4H) - 작전지역 소개(30') * GOP 정훈장교 - 경계 체험(2H30') - 이동(1H)
	◦ 3분 스피치(4H)	◦ 대적관 노래 만들기(2H)	◦ 3분 스피치(4H)
	◦ 전사적지 견학 소감 작성 / 발표(1H)	◦ 적 이미지 그리기(2H)	◦ GOP 경계 체험 소감 작성 / 발표(1H)
비 고	전부대	전부대	사단 직할대 FEBA 부대 권장

<표5-15> 참여식 체험위주의 대적관 교육(예)

* 자료 : 승리부대. 대적관 교육 활성화 계획.

4. 대적관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담 기구 설치

1) 대적관 교육 여건 조성

군 대적관 교육은 물론 제반 정훈교육이나 정신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지휘관의 높은 관심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역량이 중요한 것과 못지않게 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흥미를 갖고 교육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네, 교육 환경과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교육성고가 달라질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IT산업에 발전과 함께 교수-학습 기법도 CBT, WBT, e-Learning, ICT 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최신화 된

기법은 학교 기관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을 뿐 야전부대에서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교육할 만한 장비도 보급되어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 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훈교육도 컴퓨터와 인터넷, 웹 등 디지털화 된 교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신세대 장병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법인 질문, 인터뷰, 애니메이션, 실험 영상 등을 활용하고, 영상세대 장병들 특성을 감안하여 흡입력과 전달력이 높은 다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군TV를 통하여 방영하거나 DVD 등으로 보급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TV 수상기를 LCD나 LED 대형화면으로 교체해 줘야하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PTV의 보급이 단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대단위 정훈교육용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의 보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 시설은 최근 병영시설 현대화에 발맞춰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다목적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다. 중대 단위 다목적 홀은 천정고가 낮아 많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제한을 받는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대대 단위 다목적 강당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지금과 같이 식당이나 종교시설 등을 찾아 전진하는 실정을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대적관 교육 전담 기구 설치

군 정신전력 강화 문제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각종 도발이 있을 때마다 거론됨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2010년 12월에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과제를 선정하면서 국방정신전력학교(가칭) 설치 문제를 반영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실무적 추진은 2011년 말 현재 전무한 실태이다.

대적관 교육을 비롯한 정훈교육이야말로 국방부 통합적인 차원에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현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신전력 육성 및 관리, 교리 연구 등을 전담하는 전담 기관의 설치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부의 조직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국방부는 현재 교육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과를 모체로 다시 정훈 교육과 문화홍보활동 등을 망라한 정신전력 전담 조직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전력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을 선발하여 국장급으로 보직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전력 연구 및 교육 전담 기관 설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정신전력센터를 편성하는 방안(1안), 둘째, 국방부 직할 독립기관으로서의 국방정신전력학교(가칭) 설립(2안), 셋째, 국방홍보원을 모체로 한 ‘국방교육홍보원’ 설치 방안(3안) 등이다. 제1안과 2안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해 오던 방안들로 현재는 특별한 진전이 없이 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적관 교육을 비롯한 국군의 정신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등의 효율성보다는 필요성 내지는 절박성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풀어야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제3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현재의 국방홍보원을 모체로 하여 ‘가칭 국방교육홍보원’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방홍보원과 국방대학교의 정신전력 연구 기능, 육군의 종합행정학교 정훈공보학처 등 각 군의 정훈교육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의 설치에 따른 법 개정 및 추가 소요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시설은 홍보 기능은 현재 국방홍보원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 및 교육 기능은 국방대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소요 되는 시설 및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국방홍보

원의 국방 홍보 기능과 콘텐츠에 정훈교육 및 연구 기능을 연계시켜 발전시킬 수 있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시설 이격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이나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각 방안별 장·단점과 우선순위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1안 (정신전력센터 편성)	2안 (국방정신전력학교 창설)	3안 (국방교육홍보원 개편)
장 점	○ 부분적인 연구 및 교육 기능 수행 가능 ○ 설립 기간 단기 소요 (현 연구기능에 교육기능 추가)	○ 국방 차원의 정신전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최고 기관 ○ 군 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정훈장교 등 전문 육성기관 역할 수행 가능	○ 시설 확보 등 추가 예산 과다 소요 ○ 관련법 제정 필요 및 설립기간 장기 소요
단 점	○ 군 정신전력 통합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미흡 ○ 국방대 설치 법령 개정 및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 소요	○ 시대 발전 추세에 부합, 홍보+교육연구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시설 및 예산 추가 소요 최소화 가능 ○ 최소한의 관련 법령 개정만으로도 가능	○ 현 홍보원 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 자력 이격 감소
순 위	3	2	1

<표5-16> 전담기구 설치 방안 비교

제 4 절 정신교육 평가

이제껏 정신교육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지 분석결과에서도 정신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교육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하여 내용이 분석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반영되어 교육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 정신교육 시 군 간부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지 않는 평가(무기명 만족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신교육의 질 향상을 꾀 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교육이 소양과정이라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양성과정/보수과정)에서는 정신교육이라는 과목이라기보다 윤리 혹은 안보 과정이라는 과목 등으로 정신교육평가를 당당히 실시하고 그 과목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육군의 간부양성과정에 있는 3 사관학교나 행정학교 간부들에 대하여는 정신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있다.⁷⁰⁾

셋째, 정훈간부화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중 하나인 소집교육 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평정에 포함시킴으로서 모범간부에 대한 해외 순방이나 성과 지급에 반영시켜 교육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신교육 정책 제언

군인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신명을 바칠 수 있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핵심이다. 군대교육의 일부로 실시되는 정훈교육은

70) 고성진(2008), "장교양성과정 정신교육발전방안", 『2008 정신전력 연구제 39호』, 서울 : 국방대학교.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입각하여 장병의 투철한 국가관·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첫째, 지휘관과 교관은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둘째, 교과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20세 이상의 성인인 장병들에 대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정훈교육은 성인교육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훈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대적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적관 교육은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 즉 ‘적’이 누구이며, 왜 이러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적관 교육은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국군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도발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겠다는 필승의 정신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적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병들의 모집단이 되는 청소년과 입대 장정들의 안보의식은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6.25 전쟁’이 남침이라고 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이며,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국가로 북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을 꼽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대 장정들 역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급 일반 학교에서는 왜곡된 역사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에서는 장병들의 국가관을 더욱 확고히 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관·대적관을 견지토록 하는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 특히 왜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군대의 존재 목적과 이유, 그리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대적관 교육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더욱 강도 높게 시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정신교육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조직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신전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정훈교육 교재를 편찬하거나, 주요 사안 발생시 즉응적인 정신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일,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한 선진 교육 기법을 활용한 교육보조 재료를 제작하는 등 교육 지원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방부의 독립된 조직 보강과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며, 군 정신전력 체계 전반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정신전력 전반을 조정 통제하는 기반체계가 미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방부의 정신교육 관련 조직이 1개 과에 불과한데다가 정신전력 육성과 관리를 위한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이 부재함으로써 대적관 교육을 포함한 정훈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신전력에 대한 통합적인 육성 및 관리 체계의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하여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현재의 국방홍보원을 모체로 하여 국방대학교 정신전력 리더십개발원의 정신전력 개발실, 육군종합행정학교의 정훈공보학처 등 유사기구를 통합하는 ‘국방교육홍보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군의 대내외 홍보매체를 관장하는 국방홍보기능과 정훈교육기능, 정신전력 연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도 법령 개정과 예산 및 시설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제 6 장 결 론

2010년의 천안함 기습공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불변을 입증함은 물론, 북한 정권의 이중성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으로 대북 경각심이 급격히 둔화되고, 국민 안보의식 또한 크게 약화된 우리 사회에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군에서도 정신교육 메카인 국방정신교육원이 해체된 상태에서 2004년도에는 주적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군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적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만큼 장병들의 대적관도 이완되었던 현상을 다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우리 군은 장차 국가안보의 주역이 될 신세대 장병들에게 수시로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어떻게 고취시켜서 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차제에 장병 대적관 교육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적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지휘관 역할의 재정립, 교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학습 대상자가 되는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적관 교육 방법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각 병과 학교와 야전의 각급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나아가 기본적으로 대적관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정훈교육의 틀 속에서 첫째, 대적관 교육이 강조되는 것에 비하여 대적관 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적관 교육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인 지휘관의 역할 정립과 교관 능력 향상책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수용자인 신세대 장병들의 능동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넷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소요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과 외국군의 정신교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의 대적관 교육 방법 발전에 유익한 시사점을 찾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북한군은 군대를 혁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군사 기술적인 강화보다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라고 보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 정치사상교육의 특징은 신분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차별화 적용, 정치활동조와 정치교양활동, 집회활동, 보도활동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한 행동화 유도, 군인총화, 선서모임, 당 및 사로청 회의, 공개 당 총화, 충성의 노래모임, 독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의식을 주입시키는 물론 사상적 결속을 강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신념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제대별 정치군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제대별 주기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으로 제대 후에도 직업의 선택이나 상급학교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평생 동안 개인을 평가하는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 선진국 외국군의 정신교육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지휘관 중심 정신교육 체제 하에서 정신교육에 대한 계획과 시행, 평가 등은 지휘관의 중요한 임무로서 지휘관의 책임 있는 시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둘째, 우수한 교관 확보와

교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관 양성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휘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강의식과 같은 일방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사실적인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상황을 적시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하며, 스스로 자신의 임무를 알고 술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화 정신교육과 함께 소그룹 강의와 분임 토의 및 발표, 역할 게임, 행동 실습 등 교육생이나 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다. 넷째, 교육 대상자 또는 병사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피드백 시키는 등의 수요자 맞춤형 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선진국 군은 정신교육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정신전력센터, 미군의 리더십센터, 이스라엘의 중앙 교관 양성소, 대만의 정치작전학교 등은 정신전력의 정책개발이나 양성, 그리고 장병교육, 민간기관과의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중추기관으로서 군인정신 함양과 국민정신 계도에도 앞장서게 하고 있다.

대적관 교육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대적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주체인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 교관 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 대상자인 장병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기관에서의 대적관 교육이 요망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별 특성에 맞도록 교육 목표와 요망 수준은 ‘교관 능력 배양’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내실 있게 정립되어야 한다. 대적관 교육 시간 편성은 현재 3.5%에서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 시기도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후반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방법은 교육생의 성향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평가체계 역시 교육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정립하되 대적관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야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적관 교육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야전부대에 적합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진행 모델을 설정하고, 교육 주체인 지휘관의 역할 정립과 교관 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자인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 개선과 교육 여건 조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적관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휘관 중심 대적관 교육 체제의 발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대적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전투 지휘를 지휘관이 진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승의 기초가 되는 대적관 교육 역시 지휘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휘관 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모든 교육을 지휘관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휘관이 핵심이 되어 총괄적인 지휘 하에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지휘관 중심의 대적관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휘관별 주요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책임사항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책임 있는 대적관 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방법 면에서는 학습자 참여형 교육 기법 및 모델을 적용하여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기유발을 위한 보상 확대 및 페널티 부여, 쌍방향 발표 토의식 대적관 교육 모델, 좌담회식 순회 안보교육, 주제발표식 교육 확대, '이벤트성 교육'의 활성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IT산업에 발전과 함께 교수-학습 기법도 CBT, WBT, e-Learning, ICT 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발맞춤과 아울러 영상세대 · 감성세대 · 참여세대라 할 수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법인 질문, 인터뷰, 애니메이션, 실험 영상 등을 활용하고, 흡인력과 전달력이 높은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군TV를 통하여 방영

하거나 DVD 등으로 보급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TV 수상기를 LCD나 LED 대형화면으로 교체해 줘야하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PTV의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설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므로 병영시설 현대화 계획을 보완하여 다목적 강당 등을 병영 기본 필수 시설로 포함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재 군 정훈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적관 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광의의 교육방법 개념을 적용하여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학교교육과 부대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하여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실적 고찰, 정훈교육 관련 제도와 운영 전반,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각급부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물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후방 부대의 각급 지휘관과 정훈 공보 참모, 종합행정학교 고군반 및 초군반 정훈장교와 교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진단하는 일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적관 교육을 위한 콘텐츠 분야의 검토는 본래의 연구 주제와는 다른 분야여서 깊이 다룰 수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이 논문이 우리 군의 대적관 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정부 간행물

국군정보사령부(1993), 『북한군 교육훈련』, 대전: 육군인쇄창.

_____ (1997), “최근 북한군 정신교육 실태”, 『정보사적연구지 10호』, 대전: 육군인쇄창.

국방부(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_____ (2010), 『교관용 정신교육 교재』, 서울: 국방부.

_____ (2006), 『선진 병영문화 비전』, 서울: 국방부.

_____ (2010), 『신병기본정훈교재』, 서울: 국방부.

_____ (2009), 『정신교육 기본교재』, 서울: 이화산업.

_____ (2010),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 개선 방안』, 서울: 국방부.

_____ (1988),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_____ (2011), “정훈·문화활동 훈령”, 『국방부 훈령 제1323호』, 서울: 국방부.

기무사령부(2000), 『북한군 정신교육 실태』, 서울: 기무사령부.

육군본부(2011), 『2011년 정훈공보활동 지시』, 대전: 육군본부.

_____ (2011),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전: 육군본부.

_____ (2004), 『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서울: 국방부.

_____ (2006), 『야교 7-0-1, 교수법』, 대전: 육군본부.

_____ (2011), 『정훈공보 업무규정』, 대전: 육군본부.

_____ (2007), 『정훈업무』, 대전: 육군본부.

제1야전군사령부(2010), 『정신적 태세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시범식

교육』 원주: 1군사령부.

종합행정학교(2011), 『11년 학교 교육 계획』, 서울: 종합행정학교.

_____ (2009), 『정훈병과 교육훈련 종합발전방향』, 서울: 종합
행정학교.

2) 간행물 및 보고서

국군정신전력학교(1989), 『정신전력 강화방안 연구』, 서울: 국군정신전력
학교.

국방대학교(2006), 『선진국 군 정신교육 사례연구를 통한 장병 정신교육 발전방안』,
서울 :안보문제연구소.

_____ (2005), 『안보 학술 논문집 제16집 제2호』, 서울: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신교육원(1998), 『21세기를 지향하는 군 정신전력 좌표』, 서울: 국
방정신교육원.

_____ (1992), 『군 정신교육 기법 연구』,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극동문제연구소(1971),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교육 정책』, 서울: 극동문
제연구소.

김상준외(1993), 『정신교육 방법 개선 연구』,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김용주외(2010),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 개선방안』, 서울: 화랑
대연구소.

나승룡(2011),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 기법 적용 사례와 성과. 참여형
정신교육 기법을 중심으로”, 『제2회 국방정신전력 세미나집』 서
울: 국방대학교.

남만권(2006), 『북한군사체제』,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박균열(2004), 『국가안보와 가치 교육』, 서울: 철학과 현실사.

_____ (2005), 『장병 대적관 신념화 교육방안』,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
소.

박상호(1993), 『교육방법, 교육공학』, 서울: 집문당.

- 박숙희(2002),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백승주(2011),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서의남(1993), 『정신전력연구 제14호』,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 _____ (2002), 『최근 북한의 대남 심리전실상』, 서울: 합동참모본부 심리
전단.
- 신웅섭(2005),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안보문제연구소(2010), 『2010 범국민 안보의식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 _____ (2004. 2005. 2006. 2009.), 『정신전력연구 35, 36, 37, 40호』, 서울: 국
방대학교.
- 육군 군사연구실(1998), 『북한군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연구』, 대전: 육군
본부
- 이명근(1993), 『교육훈련 공학의 기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양
서원.
- 이민룡(2004),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영진(2009), “정신전력 형성 요소를 통한 쌍방향 군 정신교육 방안”, 『정신전력
연구 제40호』, 서울: 국방대학교.
- 이형행(2010), 『교육학개론』, 경기도: 공동체.
- 임홍균(2005), 『흔들리는 북한군』, 서울: 생명의 숲.
- 장영주(2008),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 경남대학교.
- 전웅(2005), “21세기 한국의 국가 안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
보학술론집 제16집 제2호』, 국방대학교.
- 전호환(2006), 『수용자 중심의 군 정신교육 방안』,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정석홍(1997), 『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 사람.
- 지경재(1998), “야전군 지휘관을 위한 정신교육 지도방법의 모색”, 『교수학
술 논문집 제1권』, 국방정신교육원, pp.176~177.
- 최광현(2009), 『정신전력 육성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군사학회(2006), 『군사논단 제47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 함택영(2010),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 전략』, 서울: 경남대 출판부.

2. 신문/언론 및 기타

1) 기타 간행물

민중서관(1992),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관.

연합통신(1996), 『북한 50년』, 서울: 성웅 인쇄사.

『국방일보』, 2011. 8. 18일자 6면.

『국방일보』, 2011. 3. 23일자 6면.

『국방일보』, 2011. 10. 5일자 6면.

『국방일보』, 2007. 3. 28일자 6면



【부 록】

1. 정훈 활동 훈령
2. 남북 군사력 비교
3. 「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목차
4.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목차
5. '09년, '10년 장병 신념화 영상교재 목록
6. 신병 표준교육 일정표
7. 부대 유형별 연간 정신교육 시간
8. 주간 정훈교육 요일 변경 시행 지시

부록1

정훈 활동 훈령

(3-3-1-훈01, 국방부 훈령 제1323호)<2011. 4. 20>

제5조(목표) 정훈활동의 목표는 투철한 국가관·안보관 및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장병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6조(정신교육) ① 정신교육은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확립 등 인간 정신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는 가치관교육, 생활교육, 각종훈련, 환경조성 활동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② 정신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군인정신교육 : 군인정신 6대 요소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
2. 간부교육 : 투철한 국가관, 직업관,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 간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제7조(정훈교육) ① 정훈교육은 국가관·안보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과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② 정훈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정훈교육 :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2. 시사안보교육 : 장병의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 시사·안보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교육
3. 문화단결활동 : 장병의 정서함양, 소질 계발, 사기진작 및 부대단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

제8조(부대 및 학교 정훈교육) ① 각급 부대에서 정과시간에 실시하는 부대정훈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별 부대임무의 특성 또는 긴급한 작전임무 수행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1. 일일 정훈교육 : 부대 임무수행 의지 제고를 위하여 일일단위로 실시
2. 주간 정훈교육 : 매주 각 급제대 지휘관 주관으로 “정훈교육의 날”에 실시
3. 반기 집중 정훈교육 : 대대단위로 연 2회 실시

② 학교 정훈교육은 간부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정신교육 지도 능력 구비 및 교관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학교별 총 교육시간의 5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한다. 교육 요망수준은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신 분별로 차등화하고, 세부내용은 해당 연도 정훈·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부록2

남북 군사력 비교 (국방백서)<2011. 11.>

구 분			한 군	북 한	
병력 (평시)	계		65만여 명	119만여 명	
	육군		52만여 명	102만여 명	
	해군		6만8000여 명	6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11만여 명	
주요 전 력	육 군	부 대	군단(급)	10(특전사 포함)	15
			사단	46(해병대 포함)	90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0(교도 10여 개 미포함)
		장 비	전차	2,400여대	4,100여 대
			야포	5,200여문	8,500여 문
			다연장·방사포	200여문	5,100여 문
			지대지 유도 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정	전투 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 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 함정	20여 척	30여 척
	공 군		잠수 함정	10여 척	70여 척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지원기	190여 대	510여 대
			헬기	680여 대 (육·해·공군 헬기 포함)	300여 대
	예비 전력(병력)			320만여 명	770만여 명(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부대, 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 * 질적 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부록3

「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확고한 대적관정립 100문 100답)

목 차

제1장.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 가. 왜곡된 반미관(10문항)
- 나. 오도된 친북관(10문항)
- 다. 왜곡된 국가관(4문항)
- 라. 오도된 진실(10문항)

제2장. 나의 조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 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부모세대들의 노력(4문항)
- 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업적/세계 속의 위상(4문항)

제3장. 우리의 적! 북한의 실체

- 가. 북한 독재정권의 실체(4문항)
- 나. 북한 독재정권의 반민족적 범죄행위(3문항)
- 다. 북한의 변함없는 군사위협(15문항)
- 라. 북한의 대남공작/선전활동(6문항)

제4장. 우리는 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7문항)
- 나. 미래 조국의 비전(5문항)
- 다. 한·미동맹의 중요성(14문항)
- 라.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가?(4문항)

부록4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육본 정신교육 핵심 과제 자료집:2011.4.1)

목 차

1.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2.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군이다
3.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4. 북한정권은 지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5.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은 변하지 않았다
6.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7.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야 한다
8.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9. 전투의지가 전승을 보장한다

부록5

'09년 장병 신념화 영상교재 목록 (8편)

매체	제 목	내 용	시 간	장 르
CD	전승의 조건 알면 이긴다	전쟁의 역사를 전투영화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명확한 적개념과 적의 전략전술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강한 전투의지와 필승의 신념, 전략적 동맹이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요소가 되어왔음을 확고하게 인식	29 분	교육
CD	불굴의 역사 영원한 전진	시련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조국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전진을 다짐	18 분	다큐
VCR TAPE	우리의 선택 전략적 한미동맹	한미 외교사 및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대미관 정립	23 분	다큐
VCR TAPE	공감 북한의 진실을 말하다	대학생 및 장병들이 토론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확고한 대적관 확립	24 분	다큐
VCR TAPE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	정부수립의 정통성과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국가관 정립	75 분	다큐
CD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1편 : 아들의 영혼이 묻힌 코리아) (2편 : 유골로 한국에 돌아온 푸른 눈동자)	국군의 위상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민주주의와 조국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재다짐	25 분	애니메이션
VCR TAPE	북한 대남적화 전략 전술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전술을 명확히 인식	15 분	다큐
CD	강한전사 안전한 육군	육군을 소개하는 내용, 각 8편 제작, 광고형식으로 소개	6분	교육

'10년 장병 신념화 영상교재 목록

(15편)

매 체	제 목	내 용	시 간	장 르
CD	전승의 중심 여기서 우리가	육군 교육사령부의 발전 과정	11 분	다 큐
CD	월남 패망, 우리에게 남긴 것	베트남 전쟁과정과 전후 상황	47 분	다 큐
CD	만남 그리고 동행	6.25전쟁의 발발 배경 및 군인정신 함양	18 분	다 큐
CD	폐허의 땅에서 평화의 꽃이 피다	유엔군 등의 전쟁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18 분	다 큐
CD	평화는 희망 위협은 현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	22 분	다 큐
CD	독일 통일 바로 알기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교훈	22 분	다 큐
CD	천안함 침몰 사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우리의 대응	10 분	다 큐
CD	영원한 약속, 이제야 지킵니 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소개	11 분	다 큐
CD	경술국치 100년 잃었던 조국 의 역사를 새로 쓰다	일제침략에 따른 피해와 항쟁 대한민국의 발전 상	21 분	다 큐
CD	한국전쟁 10편	한반도에 의미 없는 국경선만을 남긴 채 중단되 어버린 한국전쟁 이야기	각 60 분	다 큐
CD	대한민국 신화창조의 힘	장병들의 자긍심과 사명관수의 중요성 인식	23 분	다 큐
CD	북한, 벼랑 끝으로 가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고한 안보관 정립	20 분	다 큐
CD	전우여! 우리 함께 가자	6.25전쟁관련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난 전장살상 군인정신 함양의 중요성 인식	24 분	다 큐
CD	2011 대적관 확립 프로그램	집중 정훈교육용	101 분	교 육
CD	울지마 톤즈	인간이 인간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신부이면서 의사의 이야기	60 분	다 큐

부록6

신병 표준교육 일정표

주차	일차	요일	정 과 교 육								과외시간	내무교육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20:00~20:50
1	1	월	입소식		제식훈련		정훈교육#1		정훈교육#2		채택단련	자살사고예방VCR
	2	화	군법	부대 내규	정훈교육#8		제식훈련			채택단련	군대예절CBT	
	3	수	군사보안		정훈교육#10		군대예절			채택단련	경계VTR	
	4	목	K-2기계훈련				경 계			채택단련	개인화기VTR	
	5	금	경 계							채택단련	야간경계, 야간근무체험	
	6	토	병기손질 요령									
2	7	월	사격술 예비훈련									군인복무규율
	8	화	사격술예비훈련				대공/야간사격술					총기손질, 인성교육
	9	수	사격전시험				영점사격					내무검사
	10	목	영점사격				기록사격					행군CBT
	11	금	기 록 사 격									야간사격
	12	토	군 가 교 육									
3	13	월	정훈교육#9		제식훈련		주간행군				소대장간담회	
	14	화	정훈교육#3		사단장 정신문화		제식훈련		지뢰/BT	채택단련	수류탄CBT	
	15	수	수 류 탄									화생방CBT
	16	목	화 생 방								채택단련	각개전투CBT
	17	금	숙영지설치		주간이동기술							야간이동기술/숙영
	18	토	군장결속요령									
4	19	월	지형지물이용/장애물 통과									야전축성/진지전투
	20	화	종합각개전투				야전축성/진지전투					인성교육
	21	수	정훈교육#4		제식훈련		총검술			채택단련	구급법CBT	
	22	목	정훈교육#11		제식훈련		구급법			채택단련	준비태세CBT	
	23	금	정훈교육#7		제식훈련		준비태세		군장검사		야간행군	
	24	토	분대장 간담회									
5	25	월	총 검 술				군대예정			채택단련	내무검사	
	26	화	정훈교육#5		위생 교육	사고 예방	제식훈련			채택단련	육군가치관CBT	
	27	수	병영생활행동 강령		총검술		종합평가			채택단련	군대예절CBT	
	28	목	정훈교육#6/12		제식훈련		정훈교육#12		수료식/배출		이등병이 되는 날 행사	
	29	금	제식훈련		수료식/배출							

부록7

부대 유형별 연간 정신교육 시간

과 목		부대별			비 고
		전투	기행	경계	
계		108 H	72 H	36 H	
기본 정훈 교육	군인 정신	12	12	12	※ 국군방송 TV(명강특강 및 정훈교실) / 영상교재 시청, 국방일보 기본교재 윤 독 및 토의, 결론 순으로 진행
	국가관	12	12	12	
	안보관	12	12	12	
시사안보/역사 교육		36	36		경계부대의 경우 별도의 가용시간 활용 ※ 국방일보 기본교재 활용
문화단결활동		36	기행, 경계부대의 경우 별도의 가용시간 활용		

제 2신병교육대 교관용 참고자료

구 분	과 제	교 육 자 료
국가관 · 역사관 (4H)	시련과 극복의 역사	- 경술국치 10년, 시련과 극복의 역사(2010, CBT) - 불굴의 역사, 영원한 전진(2009, 영상) - 잃어버린 조국의 역사를 새로 쓰다(2010, 영상)
	자랑스런 대한민국	- 내가 지켜야 할 자랑스런 대한민국(2010 CBT) - 대한민국 신화창조의 힘(2010, 영상) - 아! 내 사랑 대한민국(2008, 영상)
안보관 · 대적관 (6H)	북한 대남적화전전략전술	- 학교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2010, CBT) - 심층분석, 북한 대남적화전전략전술(2009, 영상) - 북한 벼랑 끝으로 가다 (2010, 영상)
	북한 군사위협 실체	- 한반도 총성은 멈추었는가(2010, CBT) - 평화는 희망, 위협은 진실(2010, 영상) - 긴급진단 북한은 지금(2008, 영상)
	전문가 초빙교육	안보전문가 및 탈북자 초빙강연
군인정신 (4H)	위국헌신 군인본분	-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표 안중근(2010, CBT) - 안중근 복위 38도(2009, 영상) * 불굴의 군인정신 사례를 부대별 보완 활용
	지휘관 특강	- 전승의 조건 알면 이긴다(2009, 영상) - 전우여 우리 함께 가자(2010, 영상) -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길(2008, 영상)

주간 정훈교육 진행요령

1. 국군TV ‘주간 정훈교육’ 프로그램 방송(매주 수요일)

구 분	1회		2회		3회	
프로그램	정훈교실	명강특강 • 역사교육	정훈교실	명강특강 • 역사교육	정훈교실	명강특강 • 역사교육
방송시간	09:00 ~09:20	10:00 ~10:30	15:00 ~15:20	15:20 ~15:50	20:00 ~20:20	20:20 ~20:50
시청대상	• 전투 / 기행부대		• 경계부대		• 교육 미참석 열외자 교육	

2. 주간 정훈교육 진행요령

구 분	진 행 요 령
기본 정훈	• 국군TV '정훈교실' 시청(20분), 주제발표(30분) * 국군TV 시청 20' * 주제발표 25'(주제별 발표자 1명 사전 지정 발표 후 자유토론 진행) → 교관 강평 / 결론 유도(5')
시사 안보 / 역사 교육	• 국군TV '명강특강' 시청(30분), 토의 및 발표(20분) * 국방일보 윤독 및 토의(15') → 교관 결론(5') • 월1회, 국군TV '역사교육' 시청 (30분), 토의 및 발표(20분) * 국방일보 '역사교육' 윤독(15') → 교관 결론(5')
문화 단결 활동	• 진중 문화예술활동, 지휘활동, 대적관 퀴즈, 전사교육, 영상시청 등 * 매월 마지막 주 : 중대 단결회의

반기 집중 정훈교육 편성안(案)

구 분	교 육 과 목	시간	교 육 자 료
통제 과목 (30)	• 시련과 극복의 역사 •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 자랑스런 대한민국	2 2 2	• ‘불굴의 역사, 영원한 전진’(‘09. 11) • ‘잃어버린 조국의 역사를 새로 쓰다’(‘10. 7) •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09. 6) • 대한민국 신화창조의 힘(‘10. 11) • ‘폐허의 땅에서 평화의 꽃이 피다’(‘10. 5)
	• 지휘관 특강 • 북한 대남 적화전략전술 • 북한의 군사위협 실체 • 한미동맹의 중요성 • 60년전 사선에서(영상시청) • 전문가 특강 * 필요시 KBS 한국전쟁 영상시청 및 전적지 견학(4시간 이하)	1 2 2 2 1 2	• ‘북한 벼랑 끝으로 가다’ (‘10. 11) • ‘평화는 희망, 위협은 현실’(‘10. 5) • ‘전승의 조건, 알면 이긴다’(‘09. 11) • ‘심층분석, 북한 대남적화전략 전술’(‘08. 12) • ‘공감, 북한의 진실을 말하다’(‘09. 6) • ‘우리의 선택, 전략적 한미동맹’(‘09. 6) • 60년 전 사선에서(‘10. 11)
	• 인성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 • 언어폭력 예방 교육 • 육군 가치관 *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4시간 이하)	5 1 3	• ‘전우여 우리 함께 가자’(‘10. 11) •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국방부) • 강한친구 만들기 리더십 프로그램(리더십센터) • ‘만남 그리고 동행’(‘10. 5) • 성공코드를 찾아라! •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라’ (‘08. 5) •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표 안중근 장군’(‘10. 3) • ‘영웅! 김영옥 대령’(‘08. 5) • ‘안중근 복위 38도’(‘09. 6)
	• 교육장 및 교보재 준비 상태 확인, 병력 이동 등	5	
	• 부대 위임(자율판단 시행) • 주제발표, 골든벨 경연대회 • 안보전작지 견학, 결의대회 등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입·퇴소식	10	

부록8

주간 정훈교육 요일 변경 시행 지시

(육군본부 지시, 2011. 7. 22)

1. 추진 배경

- 가. 전 군 동시간대 교육으로 일체감 조성 및 동일시각 형성
나. 전투체육과 연계, 통합 시행으로 심신단련 효과 증진

2. 변경 내용

- 가. 교육시행 요일변경 : 월요일 오전 → 수요일 오전 시행
(09:00 - 11:50)으로
나. 국방일보 교육자료 게재 요일 변경 : 목요일 → 월요일
다. 국군TV 방송시간 변경

구분	본 방 송 (수요일 오전)	재 방 송 (수요일 오후/저녁)	추가 방송 (금요일 오후)
·방송 일시	• 09:00 - 09:20(정훈교실) • 10:00 - 10:30(명강특강)	• 1차 : 15:00 - 15:50 • 2차 : 20:00 - 20:50	·14:00-14:50

- 라. 방송자료 탑재 서비스 활용

- 1) 국군TV 방송자료 IP-TV 탑재 및 육군

안보교육지원센터 탑재 : 수요일

- 2) 국군TV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활용 : 금요일

- 마. 시행 시기 : ‘11. 9. 1부

(부대운영 주기 및 KFN 프로그램 편성과 연계)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measures of Troop Information Education

Focused on Establishing
a concrete Point of View on Enemy

Na, Young Jo

Dept. of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condition of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TI&E) and how TI&E's direction coincides with changing historical environment and a plan to activate the effect. Youth whom get recruited to the military is a lot different from older generation in numerous ways. They've grown under wealth and within the democratized politics. They are usually open minded, have clear and rational opinion. They experienced the Seoul Olympics and the World Cup, and are much more absorbent to foreign culture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Not only they are absorb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lso to North Korea. Being born long after the Korean War, they do not share memories about North Korea with the older people. Their point of view on North starts with the con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the day when North and South Korean athletes entered the

Sydney Olympics together. Naturally, their point of view on North is positive than negative, otherwise ambiguous. However, North Korea's hostile act is consistent. North is consistently provoke us with threatening statements on Central Broadcast and arousing tension in the Yellow Sea. Numerous military provocations have occurred and take decisive action to experiment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erefore, strong TI&E was inevitable.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strengthen new generation soldiers' fighting spirit effectively. At first, examine the current TI&E system and its step of putting it on to the force. Also, discus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fighting spirit and improving the TI&E.

Moreover, by studying foreign countries' condition on TI&E will present a direction for our troops to improve.

For instance, Germany's TI&E, which instructors and students cross-communicating, and United States' education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instructors' role.

We can analyze present state of our troops' TI&E. The current method which forces learners to cram on the lecturing materials could have negative influence on troops of new generation, depriving them of motives, which in turn makes them passive learners. Also, TI&E sessions should not only be practiced by TI&E instructors, given inferior conditions of the field army. Schools' curriculums and goals of learning should be also improved since current curriculums are not enough to train instructors into sufficient level.

Active TI&E could only be accomplished when these problems are

solved. First, education of executive members should be revitalized. One method is making sure that all executive officers are able to hold TI&E sessions so that education could be taught by any officer with certain level of know-how. By this method an officer can educate their troops in daily life.

Next, teaching method of schools should be improved. Vague curriculums and goals should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levels of expertise so that the effective training could be made.

For the last, TI&E should be developed in concept of participation. Method which makes learners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cess could be a good model to apply in actual practice. This could heighten the importance of making statements in the debate, which can bring forth enthusiasm of soldiers of new generation.

【Keyword】 Improvin condition of TI&E, Forerign Countries' TI&E, Current Point of View of the Enemy